

행 사 일 정 표

㉠ 세미나 개최식 【13:20 ~ 14:00】

- 국민의례
- 개 회 사
 - 변재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 격 려 사
 - 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
- 노인일자리사업 모니터링단 임명장 수여식

㉡ 기조강연 【14:00 ~ 14:50】

-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 주제발표 【15:00 ~ 17:00】

- 좌 장 최원규 전북대 교수
- 제 1주제
공공부문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발 표 자 이인재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 제 2주제
노인일자리사업 성공 및 실패사례
 - 발 표 자 류재룡 대전유성구 노인복지관장
 - 김창규 대구남구 시니어클럽관장
- 종합토론
 - 토 론 자 이상인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장
 - 박두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시험관리국장
 - 신미경 여주시노인복지관장
 - 김한준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팀장

목 차

주제발표 I

- ∞ 공공부문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1
이인재 교수 / 한신대 재활학과
-

주제발표 II

- ∞ 노인일자리사업 성공 및 실패사례 • 27
 - 교육복지형과 자립지원형 일자리 중심으로
 -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복지형 사업의 성공 및 실패에 대한 소고 • 29
류재룡 관장 / 대전유성구 노인복지관
 - 시니어클럽 사업사례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한국형노인일자리 사업 모색 • 39
김창규 관장 / 대구남구 시니어클럽
-

주제발표 |

공공부문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이인재 교수
한신대 재활학과

제 1 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인구의 일자리개발이 국가의 주요 국정과제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
-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연금의 부담 감소, 건강한 노후생활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일조, 노인의 자긍심 강화, 가족간 관계 개선 등 다양한 장점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 현재 과제는 노인들의 특성에도 부합하면서 지속적이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
- 현재 고령자 적합직종 선정은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고령자, 준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고, 300인 이상 대기기업의 경우 3.0%이상의 고령자 취업을 권장하고 있음
- 1992년부터 2002년까지 5차에 걸쳐 고령자 적합 직종이 선정됨
- 2003년 6월 노동부는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으로 공공부문 70개, 민간부문 90개 등 160개의 업종을 선정, 고시
- 시장에서 작동될 수 있는 민간영역의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하는데 이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
- 우리나라에서 2004년 본격화된 노인일자리사업은 첫 해 2만자리, 2005년 3.5만자리, 2006년 8만자리 등 매년 국가가 제공하는 일자리 수를 급속하게 늘리고 있으나 아직은 시작단계임
- 노인일자리사업은 현재 8대 전략사업을 선정해 두고 있으며 이는 어르신 거리환경 개선사업, 숲 생태 해설가 사업, 시니어 문화유산 해설사업, 1:3세대 통합 프로그램, 급식 지도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가사도우미, 지역 지킴이 등인데 현재 개발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지역 현장에서의 검증, 파급효과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협조 가능성 등 업그레이드 전략을 고려해야 함
-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여러 과제중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 개발, 그 중에서도 공공부문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기존 일자리사업의 내실화와 새로운 일자리 개발의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특히 고령자 적합직종 역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안을 만들어내야 함

2. 연구 방법 및 내용

-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 연구와 지방자치단체 조사연구를 병행
- 먼저 문헌연구에서는 고령자의 특성과 고용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념, 선정 기준 및 전략직종 등에 관한 국내외 문헌들을 분석

- 공공부문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을 위해 조사연구를 실시 : 1개 광역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와 1개 기초자치단체(경기도 시흥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노인적합형 일자리 사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
- 조사연구에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한 문헌 등 사전조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노인적합형 일자리 유형과 체계를 구축

제 II 장 고령자특성 및 고용현황

-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직접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경로연금 지급대상기준 등을 준용하여 노인을 65세 이상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서는 55세~64세를 고령자, 50세~54세를 준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4년 실시한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노인계층의 일반적 특성과 고용현황 및 욕구를 살펴봄

1. 고령자의 특성

- 조사대상 노인은 남자노인이 38.3%, 여자노인이 61.7%로 여자노인의 비중이 23.4% 포인트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나는 성별 차이가 있음 => 노인 수명의 성별 차이 관련
- 현재까지는 69세 이하의 전기 노인(young-old)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1998년도 조사결과와 통계청 인구센서스 조사 자료와 비교해 볼때, 노인 집단 내 연령별 구성비에서 후기노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노인의 고령화
- 교육수준은 초등학교가 35.0%, 글자해독 20.9%, 중·고등학교가 19.4%, 글자모름 19.2%, 전문대 이상이 5.6% 순으로 나타남
- 결혼상태는 유배우 54.8%, 무배우 45.2%로 유배우 비율이 근소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읍·면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평균 연령이 약간 높게 나타남
- 노인부부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형태들은 모두 여자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특히, 노인독신가구의 경우 여자노인의 비율이 87.7%에 달함

2. 고령자 고용현황

- 2004년 현재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전체노인의 30.8%
- 지역별로는 동부는 21.5%, 읍·면부는 50.1%로 읍·면부가 동부에 비해 약 2배가 높은 취업률을

보이며 이는 읍면부거주 노인의 경우는 농어축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이러한 직종이 정년이 없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

-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노인의 취업률은 41.8%, 여자노인의 취업률은 23.8%
-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 노인의 경우 23.6%로 다른 학력의 노인에 비해 취업률이 낮게 나타남
- 전체 노인의 약 30%인 취업노인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농어축산업으로 취업노인의 53.9%가 종사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는 27.8%가 단순노무에 종사
- 취업노인의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이 49.2%이며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17.4%로 높게 나타남
- 취업노인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20시간미만이 18.8%, 20~40시간미만이 38.6%, 40~60시간미만이 25.3%, 60~80시간미만이 11.4%이며, 80시간 이상 또한 5.8%로 나타나 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노인의 비율이 17.2%로 높게 나타남
- 현 직업에 종사한 총 기간은 평균 29.6년에 해당함
- 노인의 취업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지역뿐 아니라 연령상·교육수준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노인의 특성별 욕구에 따라 적합하고 다양한 직종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현재 취업중인 노인의 취업만족도에서 37.0%는 만족하고 있으며, 37.9%는 불만족하고 있어 그 비율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남
- 현재 취업중인 노인 중 취업 불만족 이유는 임금수준이 49.5%로 가장 많이 나타나며, 업무 양에 대한 불만이 33.4%, 업무 내용에 대한 불만이 15.6%로 나타남
- 취업노인의 72.4%는 향후 계속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노인들이 일생동안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을 살펴보면 농어축산업 종사자가 38.8%로 가장 높으며 단순노무종사자가 20.5%로 나타남

3.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인인력운영센터의 2004년도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실태를 분석

가.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현황

- 2007년까지의 노인 일자리 30만개 개발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연도별 일자리 개발전략이 마련되어 그 첫해인 2004년에는 1차로 2만개의 목표가 설정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참여인원은 목표치를 26% 초과 달성한 35,127개의 일자리가 개발 추진되었고 공공참여형에서 예상 목표치를 42%나 초과 달성한 28,373개의 일자리가 개발되었음 : 한편에서는 임금살포식 사업수행이라는 과거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에 가해졌던 비판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 2004년도 경우 민간이 중심이 된 사회참여형과 시장참여형의 경우 계획대비 각 82%와 99%의 성과 달성은 계획된 대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적절히 추진되어온 것으로 판단됨
- 공익강사형 일자리의 경우 목표치의 95%에 해당하는 전국적으로 3,800여개의 일자리가 개발되었지만, 인력과견형의 경우 58%의 성과에 머물러 시장 참여적 성격이 강한 주유원 파견 등의 일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일자리 개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판단됨.

나. 노인일자리 사업단 현황

- 참여인원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참여형의 비중이 사업단 수의 면에서는 50%를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참여형은 대규모 임금살포식 사업형태로 진행된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
- 이러한 사업단의 특성은 각 지역사회에 노인일자리 전달기구의 적절한 설치를 필요로 하는 전달체계 구축의 문제와 연동됨 : 예를 들어 부천시 시니어클럽에서 시행한 VIVA6070 사업의 경우와 같이 공공참여형 사업일자리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민간단체와 연계된 노인일자리 사업은 임금살포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게 만드는 좋은 사례
- 공공참여형,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 중 공공참여형은 노인지킴이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
- 사회참여형 일자리 사업은 크게 공익강사형과 인력과견형으로 대별됨 : 공익강사형 일자리는 숲생태해설사업단, 문화재 해설사업, 교육강사 파견사업 등이 활용되었으며, 인력과견형 사업은 지역 내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를 개발하여 채용 협의를 거친 후 노동인력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인력 풀(pool)을 구축하고 파견하는 사업을 일컫는 것으로 주유원 파견사업, 간병, 베이비시터, 산후조리, 복지시설도우미 등 다양한 형태의 파견사업이 진행중
- 참여업종의 세 번째 형태로 시장참여형 일자리는 노인에 적합한 업종에서 공동창업 및 소규모사업단을 구성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경쟁적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로서, 사업 초에 초기운영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임금으로 보조 지원함으로써 사업 정착 및 독립 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는 사업형태 : 자활후견기관 사업의 내용들을 벤치마킹하여 노인들의 능력에 맞는 지하철 택배, 세탁소, 김치나 도시락과 같은 식품제조업 등을 사업단이나 공동작업장의 형태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개발하고 동원하여 진행하는 사업의 형태임.

다. 지역유형별 사업참여 현황

- 광역시의 경우 다른 지역유형에 비해 각각의 참여형태가 공공참여(33.3%), 공익강사(33.3%), 인력파견(19.0%), 시장참여(14.3%)의 순으로 비교적 고른 참여 분포를 보임었다. 이러한 분포는 광역시에 비해 공공참여형(43.6%)에서 약간의 편중이 있긴 하지만 특별시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고 일반시의 경우도 거의 유사한 양상임.
- 다만 군 단위의 경우 공공참여형이 71.1%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농어촌 지역의 노인일자리 전달체계의 미비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농어촌 지역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됨 : 별도의 독립센터형 보다는 전국 농어촌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자활후견기관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가능함.

라. 수행기관별 노인일자리 사업현황

- 수행기관별 사업단 현황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한 사업단이 214개 사업단(37.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한 사업단이 지자체 직영사업단에 비해 약간 적은 198개(35.0%)를 나타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참여형 사업에 집중되어있고,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독자적인 일자리로 전환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사회적 비용—편익성이 높은 사회적 일자리인 공익강사형(77개, 38.9%)이 공공참여형(47개, 23.7%)에 비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분포를 보이고 있음. 또한 독립 일자리로 전환 가능한 인력파견형(39개, 19.7%)과 시장참여형 사업(35개, 17.7%)이 공공참여형과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지자체 공공참여형 우수사례인 인천광역시의 <우리동네 지킴이 사업>이나 부천시의 <VIVA6070>과 같은 사업을 제외하고는 과감히 사업 철폐를 고려하여 노인복지회관이나 시니어클럽과 같은 다른 민간전달체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도 (표 2-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30개소(이중 사업개시가 1년 이상 된 기관이 20개)에 불과한 시니어클럽에서 담당할 사업단 수가 67개에 이르며(평균 2.2개), 그 중에서 시장참여형이 23개(34.3%)로 기관 당 약 0.9개의 시장참여형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하건대, 시니어클럽의 전국적 확대가 시급한 정책적 과제로 요청됨
- 군 단위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별도의 민간전달체계가 거의 없음

마.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인원과 급여

- 20명 이하의 사업단이 231개(50.3%)로 가장 많았고 21명에서 40명까지의 참여인원을 보인 사업단이 81개(17.6%)로, 결국 40명 이하의 참여 인원을 보인 사업단이 전체의 약 70%에 이르고 있음
- 70% 이상의 사업단에서 평균 15만 1천 원에서 20만원까지의 급여평균을 보였으며, 90% 이상의 사업단이 20만원 이하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됨
- 1인당 평균 지급 액수는 인력파견형의 경우 27만 7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공공참여형(19만 7천 원), 공익강사형(17만 4천 원), 시장참여형(19만 5천 원)으로 비슷한 집단별 평균급여를 보였는데,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 사업형태 중 가장 고소득 직종은 인력파견형 사업군으로 나타남

바. 노인일자리 사업 중도포기자

- 중도포기자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각각 7.5명, 7.6명으로 나타났고, 일반시와 군 지역은 각각

4.9명, 4.0명으로 나타나 대도시의 탈락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소도시 이하나 농어촌 지역의 노인 중도 포기율은 낮음

- 한편으로는 다른 형태(평균 2-3명 내외)에 비해 공공참여형(약 7.1명)이 2배 이상으로 유의하게 높은 중도포기를 나타냄
- 결국 대도시에서 진행되는 공공참여형 일자리의 중도포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추정함.

제 III 장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념 및 관련연구

1. 공공부문 노인적합형 일자리의 개요

- 노인적합형 일자리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대개의 시장경쟁 상황에서 노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쟁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 기반하며 그 개념 사용의 궁극적 목적은 '노인의 고용을 증대'하려는 것.
- 노인적합형 일자리는 산업 영역이나 분야의 측면, 직업의 작동방식 측면, 노동조건이나 급여의 측면, 고용방식 측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망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직종'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
- 하지만 사실상 노인적합형 일자리는 단지 직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모색을 필요로 할 수 있음
- 노인적합형 일자리가 적절하게 모색되어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직종을 논리적으로 선정하여 고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이것이 노인의 고용을 창출하는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동시에 고민해야만 함
-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고령자 적합직종을 제시하고 있음 : 이는 노인적합형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관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일단 직종의 수준에서 나열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 적합직종'이나 고령자 취업촉진 등의 표현과 '노인적합형 일자리' 혹은 '노인일자리사업'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 구별은 모호하나 실제에서 통상 고령자 적합직종은 노동부가 주관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정책과 관련되며 특히 시장상황에의 취업이나 재취업이라는 시장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반면 노인적합형 일자리의 모색은 보건복지부나 관련 기관 혹은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지며 시장경제에의 진입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예산 지원 혹은 공공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공공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이 노인복지를 비롯한 사회적 서비스가 발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성을 띤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이 미진한 상황에서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모색에서도 공공 영역이 간과되어서는 곤란함

2. 우리나라 노인일자리 관련 연구

- 김성순(1990)은 ①사무, 정리 ②제조, 기술 ③단순경작(耕作)업 ④관리, 감시용역 ⑤판매, 자영업 ⑥복지, 교육서비스 활동 ⑦조사연구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음
- 김동연(1992)은 김성순의 연구와 유사한 분류를 통해 고령자 적합직종을 수정하여 발표
- 황선옥(2000)은 고령자 취업훈련의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시지역, 공장지역,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적합한 직종을 제시하였고 고령자 고용만이 아니라 고령자의 창업에 적합한 직종을 제시
-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지만 노인적합형 일자리에 관한 연구로 대표적인 것은 중앙고용정보원(2002)의 “고령자적합직종 개발보고서”와 나영선(2005)의 “중고령층의 고용특성과 유망직종”을 들 수 있음
- 중앙고용정보원의 연구는 보다 많은 적합직종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다수의 적합직종을 선정하였음. 특히 이 연구에서는 취업고용분야와 창업자영분야를 구별하고 있고 또한 취업고용분야를 다시 공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촉진법으로 의무화하려는 직종유형인 ‘우선채용형’과 민간기업에게 권고하기 위한 직종유형인 ‘생계유지형’, ‘경력활용형’, ‘사회참여형’을 구별
- 한편으로 해당 직종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직종에 노인들이 실제로 종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안내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한계
- 나영선(2005)은 고령층의 유망직종으로 10개 분야 39개 직종을 제시하고 있음 : 이에는 사회서비스 분야, 교육서비스 분야, 여행 및 안내 분야, 운전분야, 음식관련 서비스업 분야, 보건분야, 금융회계서비스 분야, 영업분야, 컴퓨터분야, 기타 서비스 분야의 직종이 포함
- 이는 45세 이상의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실제 ‘노인’은 이 적합직종 내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 적합형 일자리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조치들에 대한 모색이 역시 필요
- 기존의 여러 연구들은 직종 탐색의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직종의 선정 자체가 아니라 이것이 지역사회 수준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해야 할 필요를 제기할 수 있음. 또한 이는 공공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3. 외국 노인일자리 관련 연구

가. 일본 고령자 고용정책 및 적합형 일자리개발

- 일본의 고령자고용취업정책은 ①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통하여 65세까지 고용확보, ②중고년연령자 재취업원조촉진, ③취업의욕과 체력의 다양화에 맞춘 취업기회의 확보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토록 요청 :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의 연령은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상향에 맞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토록 하였음
- 중고령자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동자의 모집·채용에 당하여 사업주가 상한연령을 설정한 경우에 그 이유를 명시토록 요구함과 동시에 사업주 사정으로 퇴직을 당하는 고령자 등에 대해 사업주가 그 직무경력과 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를 발급토록 하는 내용으로 고령자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음
- 일본의 노인일자리 사업관련 수행체계로는 정부보조민간사업, 민간기업, 협동조합, NGO 등이 있으나, 실버인재센터, 고령자사업단, 고령자협동조합이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일본은 고령화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과 전국민적으로 노인의 일을 통한 사회참여를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노동이 반드시 생계유지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일 자체가 삶의 보람이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실버인재센터에 대한 국가보조가 1980년 실시
- 일본에서는 실버인재센터가 지역사회에 사업활동의 기반을 두고 지역밀착 공헌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직으로서, 복자가사원조 서비스사업·지역환경유지 개선사업·지역문화 전승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실버인재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거리들은 크게 7개 분야로 나눌 수 있음 : 간단한 목수일, 페인트칠, 정원수손질 등의 기능분야와 학습교실강사, 경영상담, 가정교사, 영어회화 및 서예 등 전문기술분야가 있음. 또한 일반사무, 문서관리, 자료작성, 조사사무, 문서대필 등의 사무분야도 있으며, 홍보지배부, 영업, 각종 판매 및 수금 등의 절충외교분야로 나눌 수 있음. 그리고 가사원조서비스, 집지키기, 간단한 가정개호, 교통정리 등의 서비스분야는 물론, 주차장·마을회관·체육관 관리 등의 관리분야와 공원청소, 나무소독, 상품정리, 빌딩청소, 포장, 물품분류 등의 실외의 경작업 등이 있음. 이처럼 실버인재센터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직종들을 알선.
- 고령자사업단은 1970년을 전후하여 일본정부가 실업대책을 축소시키자 중고령자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해당지자체에 일자리의 보장을 요구했고, 1972년 니시노미야시를 시작으로 지자체에서 일거리를 청부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의 고령자사업단이 탄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 그러나 1980년에 실버인재센터에 대한 보조사업이 실시되면서 고령자사업단은 실버인재센터로 변경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추세

- 고령자협동조합은 고령자사업단이 수동적으로 공공의 수주에 의존하려하는 것과 달리, 자발적인 힘을 키워 자립적인 조직을 지향하고 있고, 1995년 미에현에서 최초로 만들어져 각 도도부현에 1개소씩을 목표로 조직을 확대시켜나가고 있음
- 고령자협동조합은 고령자의 취로를 「최대의 복지」 로서 중시하고, 고령자 및 협력자에 의한 자주적 자발적인 취로기회의 창출을 고령자협동조합사업의 과제로 설정하여, 고령자정책에 고령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고령자에게 맞는 일거리 창출, 서로 돕는 활동으로 풍요로운 지역사회 만들기 및 삶의 보람복지일거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나. 미국 노인일자리정책

- 미국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을 통해 실시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s Act)을 근거로 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외에 관련 법률로는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과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이 있음: 인력투자법은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기술, 고용,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복지의존도를 감소하고 국민전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 반면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에서는 1986년 법 개정시 의무퇴직 연령을 일부 특수직종을 제외하고 폐지했으며 고용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의 기회나 제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서 연령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노동부 고용훈련청(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내 고령노동자계획부(Divion of Older Worker Programs)에서 주관하며 지침작성, 예산배정, 모니터링, 각종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음. 수행기관으로는 노인기관, 국가지원기관 그리고 기타 기관 등을 들 수 있음

제Ⅳ장 공공부문 노인적합형 일자리 선정기준 및 절차

- 본 연구에서 공공부문 노인적합형 전략직종을 선정하기 위해 문헌연구, 실증적 설문조사, 관련 전문가 간담회, 관련자 면담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

- ◎ 1차 실무자 조사와 문헌연구 -> 예비적 직종의 선정
- ↓
- ◎ 선정된 예비적 직종에 대한 2차 실무자 조사와 자문단 간담회
- ↓
- ◎ 전문가 워크샵 -> 핵심전략직종의 선정
- ↓
- ◎ 부산, 시흥에 대한 현장조사 -> 적합직종의 구체적 작동조건 모색

1. 1차 예비 전략직종 선정(예비조사 및 문헌연구)

- 문헌연구에서는 노인 적합형 일자리 탐색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요 기존연구들과 일본 등의 해외 연구들을 통해 노인 적합형 일자리로 제시되고 있는 직종군들과 그 논리를 탐색
-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한 2차에 걸친 연구진 회의 등을 통해 이 직종들중 공공부문 노인 적합형 전략직종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1차 선발하고 논의
-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예비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노인인력활용실태에서 유추된 재활용품분류원, 민원상담원, 환경감시원, 가사도우미, 청소원, 운동장관리원, 소독방역원, 복지관보조원, 화물접수원, 사서보조원, 간병인, 세탁원, 검사선별원(비품,재료,자료,기록 등), 포장원, 경비원 등 15개 직종군이 추출됨
- 2005년도 시니어 클럽 실무자에 대한 예비 설문조사를 실행하여 그 결과 높은 응답을 얻은 공원관리원, 매표점포원, 문화재관리원, 주차장관리원, 안내및수위, 식물재배원, 산림보호원, 환경감시원, 거리청소원, 재활용품분류원, 주정차단속요원, 실내환경미화원 등 12개 직종이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추출됨
- 이를 연구진이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업종별 특성에 따라 현장상황을 감안하여 일부 직종을 수정 및 정리하여 29개 예비직종을 선정

- ① 관리업무 : 청사및공공건물관리, 공원관리, 문화재관리, 주차장관리, 거리청소, 소독방역원, 실내환경미화원
- ② 안내, 감시, 단속업무 : 청사안내/수위, 경비원, 매표/검표, 환경감시원, 산림보호감시원, 검사선별원, 학교폭력지킴이, 주정차단속원
- ③ 자치업무 및 지원 : 주민자치센터및공공위탁기관업무지원, 민원상담원, 복지관보조원
- ④ 공공복지서비스지원업무 : 노인무료급식지원, 도시락배달업무, 가사도우미, 간병, 보조교사
- ⑤ 기타업무 : 재활용품분류, 화물접수, 사서보조, 세탁원, 포장원, 식물재배원

- 29개 예비업종을 선정하면서 주요한 기준으로 활용되었던 기준은 노동강도, 고령자선호도, 산재위험에 대한 안전성, 고령자 생계유지, 생산성, 업무보편성의 6개 기준 : 각 기준에 대해 3점(적절성 높음), 2점(적절성 보통), 1점(적절성 낮음), 0점(부적합)의 등급을 확인

2. 2차 예비 전략직종 조사(자문단회의 및 실무자조사)

- 6개의 선정기준과 29가지 직종이 선정된 결과에 대해 연구진과 연구자문단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추가적인 보완 : 그 결과 선정기준에는 활용도와 노인특성이라는 2개 기준이 추가됨
- 한편 업종의 측면에서는 1차 예비전략업종으로 선정된 29개 직종에 더하여 우편물분류원, 장제장사보조, 호스피스 등 3개 업종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이 추가로 제기됨
- 1차 예비업종과 선정기준의 보완이 이루어진 전문가 논의를 거쳐 8개 기준과 32개 전략직종군에 대한 실무자 의견을 조사 : 실무자 조사는 시니어클럽 워크샵 기간에 참여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

3. 핵심 전략직종 선정(전문가 워크샵 및 관련 현장조사)

- 2차 실무자 조사결과로 32개 예비 업종에 대한 실무자들의 적절성 판단자료와 해당 지역사회에서 공공부문 노인 일자리 작동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과 관련 실무 전문가의 워크샵을 개최하여 핵심 전략직종을 선정
- 이 논의과정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하철 택배, 숲생태해설, 무가지배포, 문화유산해설, 공동작업장이나 창업 등에 대해서도 공공부문 활용의 적절성이 검토되었음. 또한 시험감독, 고향문화지킴이, 지하철계도, 재선충방지킴이 등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짐.
- 특히 워크샵과 연구진 회의를 거쳐 기존의 문헌조사나 논의 등에서 공공적합형 노인일자리로 논의되고 있는 업종은 다수이지만 이것이 실용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관련 직종의 니열보다는 소수의 핵심 직종군을 현실화하는 것이 주효하다는 원칙에 대한 합의가 도출 => 이에 따라 전략적 개발이 가능하거나 현재 지역의 현실에 비추어 10여 개의 핵심 직종군으로 초점화하기로 논의가 이루어짐
- 이상의 논의를 통해 공공부문 노인적합형 전략 직종군으로 청사 및 공공건물 관리, 청사 안내수위, 복지시설지킴이, 공원관리, 주정차 단속원, 학교폭력지킴이, 산림보호감시원, 식물재배원, 고향지킴이, 노인체험관운영, 물품분류원 등 11개 직종군이 최종적으로 선정
- 또한 이 직종군들은 현재 상황을 토대로 볼 때, 법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현재의 업종에서 노인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경우(직종유형 1)와 아직 우리나라에서 직업군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직종군(직종유형 2)으로 구분 가능. 첫 번째의 경우인 현재의 직종군은 다시 공공기관에서 민간위탁이 일반화되어 있어 이 시장상황에 노인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직종군(직종유형 1-1)과 아직 민간위탁 등에서 시장 등 참여의 채널이 형성되지 않아 이를 창출해가야 할 직종군(직종유형 1-2)으로 구별

- 그 결과 청사 및 공공건물관리와 청사안내 수위 등은 직종군 1-1에 해당하고 복지시설지킴이, 공원관리, 주차차 단속원, 물품분류원은 직종군 1-2로, 그리고 학교폭력지킴이, 산림보호감시원, 식물재배원, 교향지킴이, 노인체험관 등은 직종군 2로 구분이 가능

직종군	유형구분	관련유사직종	비고
청사 및 공공건물 관리	1-1	실내환경미화	
청사 안내 수위	1-1		
복지시설지킴이	1-2	노인무료급식, 도시락배달, 복지공공위탁기관 업무지원	
공원관리	1-2		
주차차 단속원	1-2		
학교폭력지킴이	2		
산림보호감시원	2	환경감시	
식물재배원	2	조경	
교향지킴이	2	지역문화재 교육 및 보급	
노인체험관	2		
물품분류원	1-2	문서수발분류	

4. 지역연구조사

- 핵심전략직종들의 실제적 작동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부산시 금정구와 경기 시흥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행함

제 V 장 공공부문 노인적합형 전략직종 및 적용방안

1. 공공부문 노인적합형 전략직종

가. 청사 및 공공건물 관리

직종명	청사 및 공공건물관리	유형	1-1 기준위탁방식조건부과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나 각종 공공건물에 대한 점검과 관리 업무를 실행하며 단순한 기초적 수준의 청결과 하자 및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함 - 기존 건물관리 업무와 유사함 		
일자리수 (추산)	최소 16,000 $3,086(\text{부산지역 조사결과}) * 30\%(\text{보호고용률}) * 16\text{개 시도} = 1,028$		
직종운영 현재 체계와 노인고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음 - 건물관리에는 이미 노인이 어느 정도 고용되고 있으며 이는 대개 인건비를 낮추기 위한 파견업체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음 		
쟁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건물관리업종의 전문기술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교육이나 혹은 기술인력에 대한 보조인력으로서의 참여 등이 모색되어야 함 - 위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존업체와의 마찰 극복 중요 		
직종운영체계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위탁조건 공지 -> 민간위탁업체의 참여(위탁업체는 정해진 비율의 노인 고용) -> 공공기관의 위탁업체 선정(노인고용효과 발생) 		
직종의 활성화 작동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물관리업무의 위탁조건에서 정해진 비율(30%) 이상의 노인 고용을 규정해야 함 - 이를 반영하는 조례나 지침의 제개정 필요 		
기타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지역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공공건물관리인력 시장은 234개 시군구의 각종 공공기관을 감안한다면 그 이상 큰 고용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영역임 - 임금수준의 지나친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함 - 용역업체의 안정성이 낮으므로 장기적으로 노인들의 사회적 기업이나 공동체 사업단 창출에 대한 모색 필요 		

나. 청사 안내 및 수위

직종명	청사 안내 및 수위	유형	1-1 기준위탁방식조건부과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나 각종 공공건물에 대한 안내와 경비 업무를 실행하며 단순한 기초적 수준의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함 - 기존 건물의 수위 업무와 유사함 		

일자리수 (추산)	최소 3,000 534(부산지역 조사결과) * 30%(보호고용률) * 16개 시도 = 2,848
직종운영 현재 체계와 노인고용 현황	-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음 - 건물의 수위직에는 이미 노인이 어느 정도 고용되고 있으며 이는 대개 인건비를 낮추기 위한 파견업체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음
쟁점사항	- 현재 노인이 많이 취업되어 있기도 하지만 지나친 근무시간과 저임금 등 노동조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제어기제가 필요함 - 위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존업체와의 마찰 극복 중요
직종운영체계 (예상)	- 공공기관의 위탁조건 공지 -> 민간위탁업체의 참여(위탁업체는 정해진 비율의 노인 고용) -> 공공기관의 위탁업체 선정(노인고용효과 발생)
직종의 활성화 작동조건	- 공공건물 안내와 경비업무의 위탁조건에서 정해진 비율(30%) 이상의 노인 고용을 규정해야 함 - 이를 반영하는 조례나 지침의 제개정 필요
기타종합의견	- 부산지역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공공건물 안내 및 수위인력 시장은 234개 시군구의 각종 공공기관을 감안한다면 그 이상 큰 고용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영역임 -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조절해야 할 필요 있음 - 이 영역은 이미 노인고용률이 높으므로 보호고용률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용역업체의 안정성이 낮으므로 장기적으로 노인들의 사회적 기업이나 공동체 사업단 창출에 대한 모색 필요

다. 복지시설 지킴이

직종명	복지시설지킴이	유형	1-2 기존직종인력직접고용
업무내용	-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에서 안내와 지킴이 업무 실행 - 사회복지시설의 각종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서비스 인력으로 활동 - 지역사회 사회복지프로그램 인력으로 활동		
일자리수 (추산)	최소 10,000 670(사회복지관) * 10 + 1,000(사회복지생활시설) * 4 = 10,700		
직종운영 현재 체계와 노인고용 현황	- 기존 직업형태가 존재하고는 있으나 미미한 상황 - 복지시설지킴이로 일부에서는 노인을 활용하는 곳이 있으나 자원봉사형태로 활용되는 곳도 있음		
쟁점사항	- 신규 채용을 위한 지자체나 복지시설의 예산 부담 능력 - 현재 자원봉사활동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과의 조절이 필요함		
직종운영체계	- 지킴이 및 관련 업무에 대한 개발 ->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 -> 복		

(예상)	지시설의 예산추가 확보 -> 지역사회 노인 채용 - 공모방식 외에 일괄적인 노인채용예산지원방식도 가능
직종의 활성화 작동조건	- 예산의 확보 - 지킴이 및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추가적인 (노인)고용을 위한 규정이나 지침의 개발
기타종합의견	- 사회복지관련 인력수요가 증대할 것에 대비한 노인고용효과 증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필요 - 지킴이 및 노인인력활용 업무 개발과 자원봉사활동 영역과의 차별성 명확화

라. 공원관리

직종명	공원관리	유형	1-2 기존직종인력직접고용
업무내용	- 각급 공원시설에 대한 관리 활동 - 기초적인 안내와 유지 및 보수 혹은 감시활동 병행 가능		
일자리수 (추산)	최소 6,000 $20(\text{국립공원}) * 50 + 234(\text{시군구}) * 20 = 5,680$		
직종운영 현재 체계와 노인고용 현황	- 기존 직업형태가 존재하고는 있으나 부족한 상황이며 수요 확대되고 있음 - 현재 공원관리 인력 중 일부로는 자체적으로 노인이 취업하고 있으며 인건비 절감과 관련되어 있음		
쟁점사항	- 신규 채용을 위한 지자체나 공원의 예산 부담 능력 - 노인고용과 지나친 저임금 문제에 대한 조절 필요		
직종운영체계 (예상)	- 공원관리인력 수요 파악(-> 지자체의 노인고용 및 파견) ->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에 따른 공원관리공단의 노인 고용		
직종의 활성화 작동조건	- 예산의 확보 - 공원관리업무에 대한 추가적인 (노인)고용을 위한 규정이나 지침의 개발		
기타종합의견	- 공원관리 업무의 체계적 개발 필요 - 노인인력활용 업무와 다른 영역 업무의 구분과 조건 확인 필요		

마. 주차차 단속원

직종명	주차차단속원	유형	1-2 기존직종인력직접고용
업무내용	- 주차차 단속업무 - 공공시설 및 건물에서의 주차차 안내, 도로에서의 주차차 단속업무		

일자리수 (추산)	대략 7,000 $69(\text{대도시의 구}) * 50 + 165(\text{기타 시군구}) * 20 = 6,750$
직종운영 현재 체계와 노인고용 현황	- 기존 직업형태가 존재하고는 있으나 부족한 상황이며 수요 확대되고 있음 - 현재 단속업무에 노인 인력 활용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며 이에 대한 제언은 있음
쟁점사항	- 대도시 지역이 아닌 경우 인력수요가 작음 - 노인고용에는 안전성이 낮다는 주장과 노인활용시 마찰이 감소한다는 주장이 병존하고 있음
직종운영체계 (예상)	- 지자체 직접 고용
직종의 활성화 작동조건	- 예산의 확보 - 주정차단속업무에 대해 추가적으로 노인을 고용하기 위한 규정이나 지침의 개발
기타종합의견	- 안전관리 대책의 마련 - 주정차 단속에서 노인인력활용 업무와 다른 영역 업무의 구분과 조건 확인 필요

바. 학교폭력지킴이

직종명	학교폭력지킴이	유형	2 신규공공시장창출
업무내용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 교육현장의 문제에 대해 감시하고, 교사나 다른 관계자에 의해 파악될 수 없는 비교육적 환경 제거를 위한 campus police와 같은 지킴이 역할을 수행		
일자리수 (추산)	대략 40,000 $6,206(\text{초등학교}) * 2 + 2,995(\text{중학교}) * 4 + 2,117(\text{고등학교}) * 6 = 37,094$		
직종운영 현재 체계와 노인고용 현황	-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신규직종에 가까움 -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자체적인 운영평가에서는 좋은 평가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쟁점사항	- 초중등학교와 비교하여 고등학교 등에서의 운영시 참여노인에게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 있음 - 참여노인의 교육 및 자격문제 - 시범사업에서 확대실시를 위한 여건(예산확보, 사업파트너 선정 등)		
직종운영체계 (예상)	- 교육부(청)의 사업지침 -> 학교(장)의 신청 -> 자격인력풀소개(지역사회 내 CSC, 노인복지회관, 노인회 등 창구) -> 학교(장) 선발 활용		
직종의 활성화	- 신규 업종이므로 법령 혹은 조례 차원에서의 채용단체 지정 조건 마련		

작동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학교규모와 소요에 따른 예산 확보 - 지역사회 노인인력관련 기관으로의 인력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한 지역사회별 기획 필요
기타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시 많은 인력고용 효과가 나타나며 기존 시범사업의 성과와 운영경험에 의한 job description이 적절히 개발되면 훌륭한 전략직종으로 개발 가능함

사. 산림보호감시원(환경감시원)

직종명	산림보호감시원 (환경감시원)	유형	1-2 혹은 2 기존직종인력직접고용 신규공공시장창출
업무내용	산림보호와 화재감시 및 재선충 조사 환경감시업무		
일자리수 (추산)	대략 7,000 234(시군구) * 30 = 7,020		
직종운영 현재 체계와 노인고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간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사실상 신규직종에 가까움 - 산림과 환경 감시 업무의 중요성 높아지고 있어 추가적 노인고용 가능함 		
쟁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강도와 현장업무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추가적 예산 소요 		
직종운영체계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및 환경산림 관련 부처의 추가적 사업지침 -> 노인단체나 관련 부서를 통한 교육과 홍보 -> 지자체의 고용 		
직종의 활성화 작동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혹은 조례 차원에서 노인고용 지정 조건 마련 -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예산 확보 		
기타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산림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신규직종이 될 수 있음 		

아. 식물재배원(조경)

직종명	식물재배원(조경)	유형	1-2 혹은 2 기존직종인력직접고용 신규공공시장창출
업무내용	식물재배, 화훼조성 및 조경 등		
일자리수	대략 2,000		

(추산)	16(시도) * 400(인력수요) * 30% = 1,920
직종운영 현재 체계와 노인고용 현황	- 약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사실상 신규직종에 가까움 - 조경과 환경 관련 업무의 중요성 높아지고 있어 추가적 노인고용 가능함
쟁점사항	- 추가적 예산 소요 - 조경 관련 전문인력과의 결합 필요
직종운영체계 (예상)	- 지자체 및 환경산림 관련 부처의 추가적 사업지침 -> 노인단체나 관련 부서를 통한 교육과 홍보 -> 지자체의 고용
직종의 활성화 작동조건	- 법령 혹은 조례 차원에서의 노인 보호고용이나 우선고용 조건 마련 -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예산 확보
기타종합의견	- 노인의 식물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식 활용할 수 있는 신규직종이 될 수 있음

자. 고향지킴이

직종명	고향지킴이	유형	2 신규공공시장창출
업무내용	- 지역별 향토문화 및 역사의 발굴과 보존 - 향토문화 소개와 안내		
일자리수 (추산)	234(시군구) * 10 = 2,340		
직종운영 현재 체계와 노인고용 현황	-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신규직종에 가까움 - 일부 지역에서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있으며 자연스럽게 노인이 활동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쟁점사항	- 참여노인의 교육 및 자격 문제에 대한 기준 개발 필요 - 업무수행체계의 개발이 필요함 - 예산 확보의 문제		
직종운영체계 (예상)	- 업무수행체계의 개발 -> 자격인력풀 발굴 -> 지자체의 고용		
직종의 활성화 작동조건	- 신규 업종이며 직종운영방안이 미진한 상태이므로 이를 지정하기 위한 법령 혹은 조례 차원에서의 조건 마련 - 지역별 상황에 따른 예산 확보 - 지역의 향토문화와 관련 노인 인력의 발굴을 위한 조사		
기타종합의견	- 개발시 인력고용의 양적 측면보다도 질적으로 적절한 공공 노인인력 활용 분야가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필수적인 지자체의 사업분야가 되므로		

	관련 부처와의 협력하에 직종개발 및 인력활용의 마스터 플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함
--	----------------------------------------------------------------------

차. 노인체험관

직종명	노인체험관	유형	2 신규공공시장창출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체험관 운영과 관련 업무종사 - 각급 학교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일자리수 (추산)	234(시군구) * 10 = 2,340		
직종운영 현재 체계와 노인고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신규직종에 가까움 - 일부 프로그램에서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쟁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노인의 교육 및 자격 문제에 대한 기준 개발 필요 - 노인체험관 건립 혹은 업무수행체계의 개발이 필요함 - 예산 확보의 문제 		
직종운영체계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체험관의 건립(혹은 프로그램 운영체계 개발) -> 자격인력풀 발굴 -> 지자체(혹은 관련 운영체계)의 고용 		
직종의 활성화 작동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업종이며 직종운영방안이 미진한 상태이므로 이를 지정하기 위한 법령 혹은 조례 차원에서 조건 마련 - 지역별 상황에 따른 예산 확보 		
기타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시 인력고용의 양적 측면보다도 질적으로 적절한 공공 노인인력 활용 분야가 될 수 있으나 체험관 마련 등에 초기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지역사회의 관련 노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함 		

카. 물품분류원

직종명	물품분류원	유형	1-2 혹은 2 기존직종인력직접고용 신규공공시장창출
업무내용	문서나 우편물 혹은 취급물품의 분류와 배치		
일자리수 (추산)	최소 5,000		
직종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의 직종 형성이 미약하여 신규직종에 가까움 		

현재 체계와 노인고용 현황	- 일부 기관에서 분류원을 활용하나 업무 활성화를 위해 추가 소요 있음
쟁점사항	- 예산 소요 - 노인 보호고용의 방안이나 기관별 채용을 위한 체계 개발(공공근로 등과 유사해질 가능성 있음)
직중운영체계 (예상)	- 각급 관공서 자체 채용 혹은 관련 노인단체나 지자체의 일괄채용 후 배치
직중의 활성화 작동조건	- 신규 업종이므로 법령 혹은 조례 차원에서의 채용 조건 마련 - 지역별 소요에 따른 예산 확보 - 고용 대상자 발굴 체계의 적절한 개발
기타종합의견	- 개발시 인력고용 효과는 높게 나타날 수 있으나 각 공공기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의 개발이 중요함

2. 노인적합 전략직종 적용방안

가. 노인일자리사업의 제도화

○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지

- 정부부처의 정책일관성과 부처간의 협력관계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현재의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건교부, 농림수산부 등이 하고 있는 각종 지역사업과 관련하여 행자부 및 지방자치단체-특히 기초단체-와의 연계 속에서 다양한 공적일자리를 확보·개발하여 노년층에게 적합한 부문을 직접 혹은 노인일자리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시행해야 할 것
- 이를 위해서 복지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지자체 사업평가 및 국고 지원·보조에서 노인일자리 개발 및 창출 실적 등을 반드시 연계·평가하여 지원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제도화 시켜야 할 것

○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

- 과제 1 : 지방정부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성 발휘 필요 : 지자체의 고유사업이나 관련 공공분야에 노인 적합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노인들에게 제공해야 함
- 과제 2 : 지방정부는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며, 민간사업수행기관을 지원해야 함 => 보건복지부 등 중요정부의 노인일자리 추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등 민간 사업수행기관과 사업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을 적극적으로 수행
- 위 두 가지 과제를 실질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기업체들과 노인일자리후견 협정을 체결하여 노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 이를 위해 재정지원, 판로지원 등을 제공해야 하며, 고용안정센터와의 실질적 연계를 강화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체계 구축

-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는 현재의 노인고용관련기관들을 체계화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일이 필요. 이를 위하여 현재의 난립되어 있는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정보와 업무를 공유하고 노인일자리를 개발하여 각 센터에 이에 대한 정보와 함께 교육 메뉴얼을 제공하고, 거시정책수립을 위하여 전반적인 노인고용현황을 파악, 연구, 총괄하는 기관이 필요함 => '중앙노인인력운영센터'의 결성과 활동 필요
- 첫째, 보건복지부 내의 '노인지원과'의 업무역량을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
- 둘째, 현재의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가칭 고령자 인력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
- 지역사회 내에서의 노인 일자리 관련 민간 기관 역시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공급자원능력의 문제를 냉정히 분석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엄정히 받아야 함

나. 노인적합직종 선정 및 최소고용제 채택

○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노인일자리 확대

(1안)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

-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5조(우선고용직종 고용)의 개정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6조(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투자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 (신규인력 채용, 결원 보충시) --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 (신규인력 채용, 결원 보충시, 민간위탁시 --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고용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고용인원의 최소 30%는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채용해야 한다.

(2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규정 신설)

-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
.. 관련 규정 없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적합직종을 선정하여, 고용인원의 최소 30%는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채용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통한 노인 고용의 확대
- 자치조례제정을 통한 노인고용의 확대 :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 노인적합직종에 대해 최소 고용제 설정.

현행	개정(안)
.. 관련 규정 없음..	지방자치단체는 --- 투자기관, 출연기관, 출자 위탁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 (신규인력 채용, 결원 보충시, 민간위탁시 ---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고용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고용인원의 최소 30%는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채용해야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적극적 참여기제 마련

- 첫째, 공공부문 노인적합 직종 11대 전략직종이 어르신들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민간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동원해야 함
- 둘째, 지방수준의 노인일자리 개발 계획을 독자적으로 마련하도록 함. 현재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 주도의 계획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의 민간사업수행기관과 함께 단순 집행 기능에 머무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11대 공공부문 노인적합형일자리 등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노인 일자리 현황, 민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황 등 현재의 수준과 앞으로 예상되는 노인들의 일자리 욕구, 민간 수행기관 확대 방안 등이 정밀하게 기획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지역차원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계획이 됨.

제VI장 결론

- 노인적합형 일자리는 산업 영역이나 분야의 측면, 직업의 작동방식 측면, 노동조건이나 급여의 측면, 고용방식 측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망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직종'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하지만 사실상 노인적합형 일자리는 단지 직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모색을 필요로 할 수 있음

- 노인적합형 일자리가 적절하게 모색되어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직종을 논리적으로 선정하여 고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이것이 노인의 고용을 창출하는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동시에 고민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실무자조사, 문헌연구, 자문단 회의 전문가 워크샵,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 지역현장조사를 거쳐 11대 핵심전략직종을 선정하였음 : 공공부문 노인적합형 전략 직종군으로 청사 및 공공건물 관리, 청사 안내수위, 복지시설지킴이, 공원관리, 주정차 단속원, 학교폭력지킴이, 산림보호감시원, 식물재배원, 고향지킴이, 노인체험관운영, 물품분류원 등
- 또한 이 직종군들은 현재 상황을 토대로 볼 때, 몇 가지로 유형이 분류될 수 있음 : 먼저 법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현재의 업종에서 노인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경우(직종유형 1)와 아직 우리나라에서 직업군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직종군(직종유형 2)임. 그리고 첫 번째의 경우인 현재의 직종군은 다시 공공기관에서 민간위탁이 일반화되어 있어 이 시장상황에 노인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직종군(직종유형 1-1)과 아직 민간위탁 등에서 시장 등 참여의 채널이 형성되지 않아 이를 창출해가야 할 직종군(직종유형 1-2).
- 부산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조사를 기반으로 공공부문 노인적합형 11대 전략업종을 선정하고, 확보 가능한 노인일 자리를 제시하였음
- 제시된 노인일자리가 지역사회에서 확보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관련법의 개정 혹은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 : 민간위탁이 일반화된 직종과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노인의 참여가 가능한 직종의 경우는 관련 법 혹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노인일 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전자의 경우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위탁공모업체에 대해 노인 최소고용기준(전체 고용인원의 30% 노인일자리)을 준수한 업체를 우선 계약업체로 선정하도록 하며, 후자의 경우는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우선 계약업체로 선정.
- 지역사회차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

노인일자리사업 성공 및 실패사례

— 교육복지형과 자립지원형 일자리 중심으로 —

류재룡 관장
대전유성구 노인복지관

김창규 관장
대구남구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복지형 사업의 성공 및 실패에 대한 소고

-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

유성구노인복지관장 류재룡

I. 들어가는 말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고령사회가 가져다 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전반에 걸쳐서 일어날 커다란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은 민감한 것 같지 않다. 피터 G 피터슨은 고령화사회가 가져다 줄 파괴력은 핵문제, 자연문제, 에이즈문제등과 같은 세계적인 문제 보다 더 심각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고령화 과급효과 중에서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로 노동시장에서는 경제활동 가능인구의 수와 비율을 감소시켜 노동의 공급 감소를 초래하고 노동력 규모의 감소 및 구성의 고령화로 경제 활력의 저하 우려가 된다. 그리고 2020년경부터 노동력 규모의 감소현상으로 경제규모가 축소될 전망이고 여성 및 고령자 고용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둘째로 자본시장에서는 고령화에 따라 국민의 총저축 감소로 인한 국가 투융자 재원이 감소를 초래하고 저축감소는 투자 위축등 경제성장 둔화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로 경제성장에서는 노동공급의 감소, 총저축의 감소로 인한 투자위축은 획기적 생산성 향상이 없는 한,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그리고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가정한 방식 추정된 결과에 따르면 2050년경 경제성장률은 1%대로 예측되고 있다. 넷째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취업자수 감소, 경제성장 둔화는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 등 재정수입을 감소가 되고 연금수급자수 증가, 노인인료비와 노인복지비용의 지출증가 등은 재정지출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재정수입감소와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수지가 악화, 경제성장 둔화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¹⁾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노인인력을 어떻게 개발하여 국가경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출범은

1) 한국노인복지학회 편, 한국노인복지의 새로운 도전, 현학사, 2002. 요약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제 노인인력을 어떻게 개발하여 나아가야 하는가는 노인인력개발과 관련된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노인취업알선센터등과 함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노인일자리에 대한 세미나는 다시 한 번 노인복지의 방향을 점검하고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 소고는 대전지역의 노인현황과 대전시 노인정책을 노인일자리중심으로 살펴보고 각 기관에서 실시된 교육복지형사업의 현황을 제시하면서 공통된 평가를 하고 유성구노인복지관 교육복지형의 형성과정, 수요처개발, 일자리후원회 구성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소고는 대전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한 복지관에서 실제로 했던 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노인복지관 교육복지형사업에 대한 성공과 실패 요인으로 일반화하기는 분석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발제 후 토론을 통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II. 본 문

1. 대전지역 노인현황

2005년 3월 현재 대전광역시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6.7%인 96,982명으로 2005년말 고령화 사회 진입 전망이며 노인인구 14%인 고령사회는 17년후 2022년 진입 전망된다. 전국 7대 도시 중 울산 다음으로 젊은 도시이기는 하나 고령화 속도에 있어서는 연평균 5천명이상 증가,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분포로 보면 대전시 노인 96,982명중 구별 노인인구는 서구 28,697명, 중구 22,260명, 동구 20,849명으로 2만명 이상, 유성구는 11,850명, 대덕구 13,326명이다. 고령인구의 구성비에 있어서는 원도심지역인 동구 8.7%, 중구 8.4%로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하여 타구에 비하여 2~3% 높다. 서구(5.6%), 유성구(5.7%), 대덕구(5.9%)는 주로 신규개발지인 아파트 중심 주거지와 연구단지 공단지역으로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령 인구비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대전에서 빠른 고령화 속도는 경제, 보건, 의료, 복지등의 문제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별·연령별 인구 현황은 2005년 3월말 현재 주민등록 통계상 고령인구의 성별 분포는 남성노인 39%(37,870명), 여성노인 61%(59,112명)으로 여성노인이 절대적으로 많다 그리고 노인인구의 연령별 구성에 있어서는 전기 고령인구(65~74세)에 비해 75세 이상 후기 고령 인구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 이에 따른 노인부양 부담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후기 고령인구일수록 건강상태가 더욱 나빠지고 경제적인 능력은 저하되며, 그에 따라 노인 보건의료 서비스 및 의료비 부담이 점차 증가된다.

일자리와 관련하여 보면 전통적인 노인부양 체계해체, 노인부양 기능약화되고 있는데 핵가족화, 자녀수 감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으로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생계를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 본인·배우자 부담 26.6%, 일부 지원 49.4%, 전부지원 23.7%로 노인부양 책임이 노인 개인에게 미뤄지고 있다.

시 전체인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2.7%인 반면, 노인인구 96,982명중 기초생활수급권자는 7,275명, 7.5%로 빈곤층 비율이 높다. 동구 2,269명(10.9%), 중구 1,620명(7.3%), 서구 1,447(5%), 유성구 612명(5.2%), 대덕구 1,327(10.0%)로 동구, 대덕구가 10%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더욱 많다.

노인인구의 29.6%가 경제활동 중이나 월평균 근로소득 10~29만원이 37%, 30~49만원이 21%, 100만원 이상은 16.6%로 낮은 소득수준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취업률이 높고 급여수준도 높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률이 높다. 노인생활 준비 비율은 28.3%로 노후 대비에 미비하며 노후생활 준비 수단으로 공적연금 67.2%, 저축 38.3%, 부동산 19.7%를 선호하고 있다.²⁾

이러한 대전시 노인현황을 보면 노인일자리 개발이 시급하며 노인인력 개발에 대한 빠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에 대하여 대전시는 장기적인 플랜인 노인복지수범육성계획 2010년 계획을 발표하고 노인일자리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³⁾ 관련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관련 수행기관간 역할 정립 미흡, 노인일자리사업관련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하다 현재 자치구, 대전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취업지원센터(6개소)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하고 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사업으로는 노인 취업알선 Net-Work 구축하여 현재 각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노인취업알선 수행하도록 하고 기관 상호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하고 노인취업알선사업 공동 홍보, 노인 적합직종 공동 개발, 노인고용 기업주 간담회 개최하며 노인 채용 우수사례집 발간 등 상호 정보교환한다. 그래서 노인인력 및 구인업체 D/B 구축, 간담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시 노인인력운영센터 설치 및 구 시니어클럽 확충계획은 시 단위 노인일자리사업을 기획하고 구 시니어클럽 등 기초단위 노인일자리 실시기관을 지원할 시 노인인력운영센터 설치하여 구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구 노인취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원 협조 관리할 계획이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정보제공, 전문경험지도, 사업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교육 훈련 등 임무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구별 시니어클럽을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실버 경비용역 협동조합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 데 노년층의 주된 취업직종이 경비직종으로

2)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수범도시육성계획, 2006년. 요약

3)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에 대비코자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노인인력개발원·민간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운영주체가 되어,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주요 노인복지사업의 하나임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나, 노인 취업시 일반 용역회사에서 소개비 명목 등으로 임금의 5% 이상을 납부하여 임금 및 근로 의욕 저하하고 있어서 “실버경비용역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예비노년층을 포함하여 노인의 자활자립 자조입단 구축 및 취업노인 실수익 증대하려고 한다.

노인 생산품 판매촉진에 있어서 노인공동작업장 활성화를 위한 "노인 일감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생산품 판매를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체,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일감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 하고 복지만두레 등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노인공동작업장 상품 사주기 운동등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등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노인 생산 작품전시회 개최하고 TJ마트, 지역상품판매점(시청1층)에서 노인 생산 우수상품 전시 및 판매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속적인 노인적합 일자리⁴⁾ 창출을 위하여 공익형 위주의 사업에서 실질적인 사회적 일자리 영역 확대하고 노-노케어, 독거노인 무선페이징 관리, 떡방 운영 등 노인적합 직종 개발 및 지정으로 제도적 노동시장에 노인 우선 고용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관도 이러한 시 노인복지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형과 복지형 사업을 감당하고 있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2. 대전에서 교육복지형실시하고 있는 기관 노인일자리 현황

현재 대전지역은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인력 증가로 노인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노인에 맞는 일자리 부족, 고령자 적합 직종의 제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취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그래서 이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인들의 지혜와 경험과 전문성을 개발하여 사회참여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대전노인복지관 교육복지형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사업명	사업유형	참여 인원	내 용
실버 인재과견사업	교육형	30명	재능이 있는 어르신을 개발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강사로 파견

4) 일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능력과 경륜을 활용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부분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 의하여 창출제공되는 「사회적 일자리」의 일종으로써, 일부 시장 내에서 만들어지는 자립형 일자리가 포함됨

(2) 동구 문화정보관

사업명	사업유형	참여 인원	내 용
할머니 동화구연	교육형	45명	동화구연을 통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강사로 파견

(3)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사업명	사업유형	참여 인원	내 용
사랑나눔미사업	복지형	50명	독거노인과 장애인가정 파견하여 집안청소, 세탁 말뒹, 병원동행, 시장보기등을 도와 줌

(4) 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 (중구)

사업명	사업유형	참여 인원	내 용
배우는 기쁨 가르치는 행복	교육형	50명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에 파견하여 구연동화, 서예, 장구, 도예등을 가르침

(5) 한국전례원 대전광역시 지원(중구)

사업명	사업유형	참여 인원	내 용
가정의레지도사업	교육형	40명	전통예절교육을 어린이집, 초등학교 노인대학 복지시설 직능단체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함

(6) 대전광역시 중구청

사업명	사업유형	참여 인원	내 용
가정도우미사업	복지형	50명	독거노인과 장애인가정 파견하여 집안청소, 세탁 말뒹, 병원동행, 취사, 시장보기등을 도와 줌

(7) 중구가정봉사원파견센터

사업명	사업유형	참여 인원	내 용
독거노인안전지킴이 One-stop지원사업	복지형	40명	독거노인의 서비스 제공등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독거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개별기관에 연계

(8) 서구노인종합사회복지회관

사업명	사업유형	참여 인원	내 용
배우리 교육강사파견사업	교육형	70명	특정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가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에서 교육 또는 강의
실버! 아름다운 동행	복지형	100명	독거노인, 중증장애노인등 방문서비스 제공

(9) 유성구노인복지관

사업명	사업유형	참여 인원	내 용
온고지신	교육형	25명	교직 유경험자를 전문강사로 교육하여 유아, 초등학교, 저소득층 주민, 사회복지시설에 강사파견
예절지킴이 (연극팀)	교육형	10명	어린이집,유치원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예절을 연극으로 교육함
사랑방선생님	교육형	15명	경로당에는 컴퓨터강사로 파견하고 지역노인대학에 전문강사로 파견함
노인주거개선 사업단	복지형	10명	집수리 경험이 있는 노인들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함
길벗도우미	복지형	25명	독거어르신 지원체계일환으로 독거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
실버시터	복지형	25명	간병과 위생관리가 힘든 독거어르신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10) 대덕구노인복지관

사업명	사업유형	참여인원	내용
실버! 아름다운 보람	교육형	60명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아시설, 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대학등 강사파견
신나는 문화예술교육사업	교육형	15명	문화와 예술관련 재능을 개발하여 공연팀을 구성하여 각 시설과 문화예술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공연함
기쁨! 행복나눔사업	복지형	60명	독거노인과 저소득노인에게 파견하여 집안청소, 세탁 말벗, 병원동행, 취사, 시장보기등을 도와 줌

3. 대전지역 교육복지형 현황 분석

이상과 같이 현황을 분석해 보면 노인복지관이 있는 대덕구, 서구, 유성구는 교육형사업 복지형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동구는 노인복지관을 구청 직영으로 하고 있고 교육형사업을 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복지형을, 동구 문화정보관은 교육형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구는 노인복지관이 없어서 일자리 특성에 맞게 중구청 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 중구가정봉사원파견센터, 한국전레원 대전광역시 지원 각1개팀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형사업의 내용을 보면 거의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대학등에 파견하는 강사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가정의레지도사업, 연극을 통한 예절교육, 문화 예술단 운영등이 있다. 복지형사업에서는 독거노인, 저소득노인, 장애인,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좀 다른 것이 있다면 독거어르신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팀이 2개가 있고 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단이 있다.

대전시에 있는 교육복지형이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각 기관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복지형을 담당하고 있는 각 기관간에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서로 배우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더 나은 교육복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를들면 강사파견형과 독거어르신을 돕는 팀과의 사례발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강사파견형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하게 되는 데 각기 다른 영역이 있어서 다른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등에 파견하는 강사들은 유형별로 공동교육도 한다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소양교육과 직무교육등에 대하여도 표준화된 매뉴얼이 있으면 장기적으

로 체계를 세워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등 수요처를 모집할 때 각 기관이 알아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협조하에 이루어지면 수요처에 개발에 대한 여력을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강사형 파견같은 경우에는 강제가 아닌 의무조항도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복지형은 2005년 보다 2006년에 자리가 20%에서 30%로 증가되었다. 공익형은 5%가 줄고 자립지원형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지만 아직 교육복지형이 지역사회 속에서 체계적인 기반구축이 미흡한 단계에서 실시되어 다소 현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2005년에 실시된 교육복지형사업이 실시한 후 평가에 대한 것이 미흡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하는 데 7개월 실시후 잠시 공백기간을 가졌다가 실시됨으로 연결성이 적었다. 그래서 2006년에 교육복지형이 실시가 되었지만 공백기간이 있어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2006년도도 2007년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와같은 일들이 점철되어지고 수요기관도 다소간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교육복지형 일자리도 단속되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램이 있다.

앞으로 국가가 일자리 예산을 계속 지원하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다. 결국 교육복지형이 노인일자리로 자리를 잡아하려고 한다면 지향하는 비는 교육형은 시장의 논리로 가야 하고 복지형은 사회적 일자리로 가야 한다면 교육형은 전문성을 개발하여 공동사업팀을 만들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복지형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현장개발과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현재 교육복지형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많아야 2명이다. 2명이 많은 데는 170명을 모집해야 하고 모집한 후에는 교육하고 파견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수요처도 개발하고 방문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야한다. 이러한 일은 사실상 2명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담보조인력⁵⁾과 단기보조인력⁶⁾과 팀장⁷⁾제를 두도록 하였으나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일자리 직원을 충원하든지 전담보조인력을 더 두도록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5) 전담보조인력은 일자리 담당직원의 부족한 것을 부분적으로 돕는 사람으로 30인이하는 1명 31인-60인은 2명, 61인-100인은 3명, 101인이상은 4명으로 두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선발기준은 55세이상으로 행정능력이 있는 자로 부대경비내에서 두도록 되어있다.

6) 단기보조인력은 단기간 서류정리 때 필요한 인력으로 100인-300인 1명이 가능하고 활용기간은 1개월 미만으로 666,560원(4,166원×8시간×20일)을 받는다

7) 팀장은 일자리 담당자 현장업무 지원보조하는 사람으로 10명당 1일 월 2만원을 두게 되어있다.

4. 유성구노인복지관 교육복지형을 중심으로

(1) 교육복지팀 이루는 형성 과정에 대하여

교육형사업은 우리가 그동안 평생교육과정을 통하여 배운 후에는 동아리로 편입하여 활동을 하게 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자리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예를들면 평생교육차원에서 연극을 배우고 평생교육에서 연극 배운 사람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일자리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육사업단이 될 것이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예절지킴이(연극)가 사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부터 어르신 리더십교육을 하여 어르신 지도자로 양성한 사람들은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으로 강사로 파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복지형사업은 그동안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 중에서 자연스럽게 일자리로 편입시켰다. 예를들면 노인의 전화에서 교육반도 독거노인안부전화를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복지형에 참여하고 독거어르신 도시락배달 자원봉사하시는 어르신이 복지형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다소 처음에 자원봉사로 임하신 어르신에게 일자리로 이어지면서 봉사의 의미가 퇴색되는 면도 있지 않지만 훈련된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유익하고 동시에 자원봉사하시는 어르신에게 동기유발은 된 것 같다.

(2) 수요처 개발에 대하여

교육형의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시군구 어린이집 협회나 유치원협회 회장을 만나 노인일자리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어린이집 원장들도 나중에 노년이 되었을 때 들어올 자리임을 인식시킴으로써 공감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한번에 20개 어린이집이 등록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년퇴임한 유아교육 교수가 우리복지관에 나오시는 데 그 분을 통하여 원장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모이게 하여 설명회를 가짐으로써 5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을 통해서도 그동안 쌓아놓은 신뢰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이 모집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강사로 파견하는 어린이집에는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1.3세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연극팀을 보내기도 하며 복지관 시설을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도 필요하다.

복지형의 경우에는 유성구에 소속한 독거어르신을 돕기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해왔기 때문에 수요처 개발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독거어르신 겨울나기 행사와 독거어르신 건강안부전화, 결연운동, 노인의 안부전화, 도시락배달, 반찬서비스배달, 독거어르신 나들이등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맺은 관계들이 수요처를 개발하는 데 수월했다.

(3) 노인일자리 운영후원회 운영에 대하여

노인일자리는 경영 전문지식과 마케팅, 그리고 지역사회 시장개척 등이 필요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복지형이라 하더라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있는 운영위원의 전문지식과 관계를 활용하여 기반조성을 하는 데 있다. 그래서 후원운영회를 통하여 노인일자리 인식확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원을 모집하여 후원구조를 만들고 점차로 정착시켜가려고 한다.

III. 나아가면서

앞으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적합한 직종개발은 향후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복지형도 정착이 되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노인일자리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가 필요하고 안정적으로 지속이 되도록 예산확보는 필수가결한 요소이다.

교육복지형사업의 주력사업은 대체로 강사과견형과 독거어르신을 돕는 노노케어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업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를 통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직종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교육이 지속적으로 해야한다.

더 나아가 노인인력개발원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노인일자리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전달체계와 논의구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교육복지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수요처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며 지역사회전체가 노인일자리에 대한 긍정적이고 참여 가능하도록 적극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니어클럽 사업사례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한국형노인일자리 사업 모색

불교사회복지회 대구남구시니어클럽 관장 김 창 규

들어가며

“고령화 경보에 제발 겁먹기를 바란다. 엉거주춤하다가는 졸지에 거대한 인구변동의 해일에 휩쓸리고 말 것이다. 이러한 경고로 훗날 공연한 일로 괜히 겁만 줬다고 나를 비난하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나는 2020년 대한민국을 걱정한다. ‘걱정한다’란 말보다 더 심각한 말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싶다...그때가 되면 65세 노인인구가 15세 미만의 어린이들보다 많아지고,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젊은이 4명이 노인1명을 책임져야한다. 5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이 모든 가공할 일들이 불과 15년이면 우리 사회를 덮친다”

노인인력활용 심각하다. 나는 2020년 대한민국을 염려한다.

이 이야기는 양치기소년의 거짓 정보가 아니다. 어느 생물학자가 진단하는 다가올 우리 현실인 초고령사회에 대한 경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가 이처럼 세계에서 유래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현재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전략과 추진은 장기적이지 못하니 큰일이다. 특히나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고령사회에 대한 담론도 없고, 대책도 없고, 오히려 고령인력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무관심만 팽배해 있는 상황이니 또한 걱정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일선 현장에서 추진하고 도모해가는 한사람으로서 ‘걱정한다’란 말보다 더 심각한 말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다.

현재까지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면 고령인력활용정책 또한 미약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니 우리나라의 고령자정책을 잠시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에야 고령인력활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노인인력활용정책은 크게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안의 고용정책과 노동시장 밖의 사회적일자리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2001년까지는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에서의 노인취업알선센터와 노인공동작업장이, 노동부가 주관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고용정보센터운영, 고령자고용촉진장

려금제도, 정년연장제도 등을 통해 고령자 취업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성과가 별로 없었고 노동부의 정책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다고 본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CSC:Community Senior Club)’이 만들어지면서 노인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가 활발히 전개되었고, 참여정부의 핵심 노인복지정책으로 2007년까지 노인일자리 30만개 개발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연도별 일자리 개발 전략이 마련되어 그 첫 해인 2004년부터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2001년부터 하반기에 시작된 시니어클럽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수행 인프라가 구축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 노인인력운영센터) 주도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되어 노인일자리사업과 시니어클럽사업과의 관계, 자원봉사, 공공근로 사업과의 관계 등에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노인일자리사업은 처음부터 노인인력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방향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지 노인에게 일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지 않나 조심스럽게 진단해본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그 현실적 가능성을 시니어클럽 (CSC:지역사회시니어클럽)의 시장형사업을 중심으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의 사례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의 급격한 사회적 욕구가 시니어클럽(CSC)이 만들어진 사회적 배경과 동기를 같이한다. 2001년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추진계획(2001. 3)』에 의하면, 시니어클럽사업은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하고 일거리에 대한 욕구 충족과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활기찬 노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노인들의 활기찬 노년생활 보장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들고 있다.

또한 2004년 1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사업 목적과 방향을 “지역사회 노인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통하여 노인의 경제사회활동 기회 확대” 및 “노인인력의 창조적 활용으로 국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연령이 아닌 능력중심의 고령사회 기반 구축’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시니어클럽사업 시범적 전개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방향성없는 사업추진 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초유의 시장형사업 추진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왔었고, 2004년에 들어서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작되어 시니어클럽 사업을 포함한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 여러 가지 제도적·정책적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특히 시니어클럽사업이 200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예산 삭감, 시니어클럽 시장형사업에 대한 지원약화 등이라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다. 기관 명칭 또한 2001년도 처음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니어클럽이 지정될 당시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한다는 취지아래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으로 제정되었지만, 2003년

명칭에서 기관의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다하여 노인인력지원기관(CSC)으로 개칭되었다가 2004년도에 노인인력운영센터와 명칭이 유사하다하여 다시 지역사회 근거를 삭제한 시니어클럽(CSC)으로만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도 정부부처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시니어클럽, 노인인력지원기관, 시니어클럽의 명칭을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2005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명시된 시니어클럽은 2001년도에 5개소, 2002년도 상반기에 7개소, 하반기에 8개소, 2004년도에 10개가 지정되어져 30개가 만들어졌고, 2005년 사업이 지방이양이후 지자체에 의해 5개소가 신규 지정되어 현재 전국 35개소이다. 시니어클럽을 통한 노인일자리사업 인프라 구축계획은 전국 사·도로 확산한다는 당초 보건복지부의 계획과는 달리 부처의 이해 부족으로 몇 년째 신규지정과 예산확보가 중단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시니어클럽 사업 사례조사는 총35개소 중 2004년도까지 지정된 30개소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사례 내용은 조사 해당기관의 주관적 기준에 의해 기술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의 성공 및 실패의 정도를 어느 기준에 둘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단순 조사자료 내용이므로 시각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제시된 사례사업은 현재 지자체와 노인복지관 등 사업수행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인 공익형과 교육복지형사업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시니어클럽의 중점사업인 시장형사업은 사업추진 결과 몇 년 동안 사업의 결과물들이 매우 고무적이고 지속가능한 노인형 일자리로 정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시장형 사업의 매출액, 참여노인의 수 등은 성공·실패가능의 여부와는 별도로 점검되어야 한다고 봄으로 본 내용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시니어클럽(CSC)이 이처럼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인력활용이라는 사회적 배경과 동기를 같이하지만 출발부터 시니어클럽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지원부족, 확산중단 등의 어려움 가운데 현재까지의 모습을 가져온 것은 주목할 일이다. 시니어클럽사업 특히 시장형사업은 복지개념을 뛰어넘어 이해해야 하는 노인복지사업이다. 노동과 복지가 결합되어 있어 사업수행에 있어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어려움과 지역특성에 맞는 시장형사업 모델 창출을 위해 실무자의 무한도전정신과 헌신적 노력이 요구되어 졌다. 또한 시니어클럽은 우리나라 노인일자리창출 전담기관으로서 2001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 황무지 상태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형 노인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책임감과 시대적 당위성을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해왔다.

2. 시니어클럽 사업의 지속 사례

시니어클럽은 2001년 시니어클럽 사업 초기부터 시장형 사업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2년에는 교육형사업인 숲해설가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전국 사업으로 확대시켰고,

2004년부터 30만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이 실시되면서 교육형, 복지형, 공익형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장형 사업으로는 지하철택배, 떡방, 도시락사업, 재활용품점, 유기농사업, 수공예사업, 공동작업장 등이며, 교육형사업은 숲해설가사업과 문화해설사사업 등이며, 공익형사업은 지자체의 요구나 사업수행기관이 없는 지역 경우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가. 지속 고용 및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장참여형 지속 사례

(1년 이상 지속된 시장형 고유 사업)

사업명	성과	성공요인
유니콘실버택배 (서울종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현재 - 일 40여명, 월 60만원 이상 소득 - 거래처 4500군데, 하루100건 - 년 800만원 투입, 3억 매출예상 - 전국 택배사업 모델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여건 양호 - 연중무휴 홍보, 1 : 1 효과적 홍보 - 회원간의 공동체 협력의식 강조
보라매택배 (서울관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 8~ 현재, 일 18명 상시근무 - 평균 1인 30~40만원 이상 소득 - 년 164만원 투입, 3천7백만원매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저한 고객관리 - 담당자의 관리능력
햇빛촌떡방 (대구 남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1월~현재, 1년만에 독립운영 - 일일 4인 근무, 월 60만원이상 소득 - 초기자본 3,000만원, 현재 년 16만원 투입, 년 1억 매출 - 전국 떡방사업 모델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에 적합한 아이템 선전(불교) - 좋은 재료 - 지역내 떡 배달 - 지역 내 적극적 홍보
서라벌 찰보리빵 (경북 경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10월~현재 - 일일 10명 근무, 월20~60만원 소득 - 1년 만에 독립사업체로 운영 - 사업비4,200만원 투입, 연간 1억 매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노동인력 투입 초기 기술지도 - 모법인의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 - 원산지에서 원활한 재료구입 - 웰빙식품으로 시기적·지역적 적합상품
밀반찬제조사업 도시락반찬배달 (광주 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10월~현재 - 밀반찬6명, 도시락반찬배달사업25명 - 밀반찬 년 174,347,000원, 도시락반찬 배달사업 년 44,457,000원 매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활동 강화로 매출액 지속향상 - 기관 내 시장형사업과의 연계 - 지역자원 활용과 지역자원의 지원
전통음식사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 3월~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음식서비스 실시

(경남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 5명 근무, 월 35~45만원 소득 - 초기자본 44, 741,145원 투입 - 년 46, 774,500원 매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꾸준한 음식모니터링, 재료직접 구입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 기능을 가진 노인 참여사업단으로 초기 운영부터 상품의 질 향상
행복나눔반찬 (강원 동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 10명(총20명참여), 1인20~30만원 - 독립사업장 확보 - 초기자본 21,000,000원 투입 - 년간 39,853,530원 매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꾸준한 홍보 통한 수요처 개발 -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사업으로 고정 매출 확보
콩나물공장사업 (강원 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12월~현재 - 일일10명(실인원20명), 월 25만원소득 - 년 매출 60,000,000원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에 의거 철저한 진행 - 민관 합동으로 공장설립 - 대형 유통매장 수요처 확보 - 자동생산라인 확보
-소담반찬 (전주 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5명, 1인 40~50만원소득 - 초기사업비 5,000,000원 투입, - 8개월간 22,000,000원 매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적합형 사업 - 동종 시장상품과 차별전략 - 지역자원연계통한 제품개발·관리
도시락사업 (전남 여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부터 사업장 마련, 각 사업단과 연계 사업 실시 - 고정 8명, 1인 평균 30만원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 활용으로 매출 신장 - 위생관리와 맛으로 상품가치 높힘
무농약 쌈채소 채배(충북 충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각지 회원제 택배 배송 - 친환경농산물인증,ISO9001인증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전 시장조사 판매처 확보 - 사업계획에 의거, 교육, 생산활동
공동작업장 (충북 청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9월~ 현재 - 일일 20명 근무, 월 15~50만원 소득 - 기존 작업장 개념탈피, 공간확보 - 참여자 2/3이상 1년 이상 근무 - 사업비 1,000,000원 투입, 년간89,000,000원 매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쾌적한 공간 확보 - 회원조직화를 통한 회원관리 - 교육,검수 통한 철저한 품질관리
행복한나눔가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4월~현재, 2호점 오픈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적합직종(수선, 세탁, 수리)

(대구 남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 20명, 복지형 26명 참여 - 월 1인 20만원 소득 - 월4,000,000원, 연간40,000,000원 매출 - 전국 재활용품사업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사회적일자리자원(청장년) 통한 힘든 노동분야 지원, 원활한운영 - 법인 지역자원 총동원, 적극홍보
시니어간병단 (대구 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11월~ 현재 - 월 40명~60명정도 상시 간병활동, 1인 월소득 70~80만원 - 연간 200,690,000원 매출 - 수요처 병원 확보로 안정 운영 - 노인전문간병단으로 위상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인 홍보 - 사업단 활동 지원시스템의 일원화 - 월 보수교육 통한 공동체의식함양, 기능보강 - 간병사자격증유도로 전문인력확보
베이비시터사업 (경기 부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1월 ~현재 - 월실인원20명,05년 83,510,000원 매출 - 활동 안정망 구축으로 상시활동 - 고령여성에 대한 인지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시장조사, 준비 - 자질갖춘 참여자 확보, 교육, 홍보 - 외부 자금 유입 - 고령여성 적합 직종
메트로신문 배포사업 (부산 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현재 - 일일 85명 평균 275,000원 소득 - 2004년:67,230,232원, 2005년30,331,999원, 2006년 현재 105,390,000원 매출 - 인력파견사업에서 시장형사업으로 전환, 수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적합직종(새벽근무시간) - 지역기업의 노인사업단에 대한 긍정적 인식 - 사업담당자의 헌신적 노력 - 현장관리 및 교육으로 자질 향상
천연수제 비누제조사업(경남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10월~ 현재 - 일일 8명 근무, 1인 60만원 소득 - 년 30,800,000원 매출(2005년 기준)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전국 매장 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비누제작 노하우 확보, 인체 환경무해 및 품질보증마크 획득, 전자상거래망 구축 등으로 시장경쟁력 확보 - 노인적합직종, 노인의 특성 이용

이상에서 소개한 시장형사업은 시니어클럽사업의 일부 사례이며, 지역에 따라 도시형, 중소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으로 구분되어 다양하게 시장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다음 중점 사례는 위에서 나열한 사업단 중, 유형별로 중복되는 사업을 대표성 사업단 개념에서 분류하여 편성하였다.

<중점사례>

○ 택배사업(서울중로시니어클럽)

사업명	사업유형	참여 인원	사업기간	년간 투입액	총매출액
유니콘지하철 택배사업	시장참여형	41명	2002.4~현재	8,000,000원정도	월 24,000,000원 '06년 3억 예상

성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명 상시참여, 소득보장 (매월1인당 평균60만원 이상) - 06년도 말 독립 예정 - 4년 1개월 만에 거래처 4500군데, 하루100건 - 04.7월 노동부 산업인력공단 정식'노인적합직종' 선정 - 시니어클럽 등 타기관의 벤치마킹 전국 사례로 활용
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년중 무휴, 1:1 대면 홍보(제일 중요하다고 함) - 입지여건 우수함. 지역 내 상가, 관공서 및 민간기업 다수. - 교육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주체적인 의사결정구조 (매일 아침 회의 개선사항 토의) - 담당자(전담 팀장)의 헌신적 노력

※ 택배사업은 서울 도봉, 대구남구, 대구 중구, 부산 금정 등에서도 시장형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수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소득과 실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무가지배포사업(부산금정시니어클럽)

사업명	사업유형	참여 인원	사업기간 (개월)	년간투입사업비	년간매출액
메트로신문	시장참여형	85명	2004~현재 (2년4개월)	2004년 773,710원	2004년 67,230,232원
				2005년 2,390,680원	2005년 230,331,999원
				2006년 3,083,908원	2006년 105,390,000원

현황 및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 85명 정도 상시 근무 고용창출 - 소득보장 1인 평균 월 275,000원 - 타 기관 벤처마킹사례로 보급 - 지속적이고 다수 노인의 고용창출이 가능한 시장형 사업 - 수익성있는 사업단으로의 확대
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조건이 고령자 적합성이 뛰어남 - 입지여건이 좋음(지하철중심) - 회사측의 노인인력활용에 대한 긍정적 입장 - 현장관리 및 교육을 통한 조합원의 자질향상 및 관리 - 조합원의 장기근속으로 인한 노인의 근로에 대한 이미지 제고 - 사업담당자의 책임있는 운영 - 조합원들의 건강관리 및 현장근무책임감 - 사업기관과 회사측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 간병사업(대구중구시니어클럽)

사업명	사업유형	참여인원	사업기간 (개월)	년간사업비	년간매출액
시니어간병단	시장참여형	42(62)명	2001.11~현재(5년)	2,064,850원	200,690,000원

현황 및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니어여성에게 간병인기술교육을 통한 잠재능력의 개발로 지역사회에 체계화된 간병 파송기관으로 인지도 정착 - 매월 40명 정도 상시근무 간병활동 - 1인 월 70~80만원의 고소득 창출 - 타 기관 벤치마킹 사례로 부상 - 차기 수발보장보험과 연관한 고용창출 가능한 시장형 사업 - 지역의 4군데 대형병원에 정직원 고용창출을 가능하게 한 기틀마련 - 타 기관의 사업관련 노하우를 전수하는 견학기관으로 위상확립
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보수교육 모임으로 기능보강 및 공동체 의식함양 - 사업단 회원, 운영위원단의 단합과 책임감 있는 운영 - 음료봉사, 도서대여 서비스 등으로 친숙감 있는 병원접근전략수립 - 거리 홍보(풍선제작선물) 등으로 시민들에게 한층 강화된 사업전략 수립 - 대한간병진흥원의 간병사자격증의 적극적인 취득유도로 수요처에 한층 강화된 신뢰감 구축 - 사업단장 중심의 활동과 사업단 전용 휴대폰 24시간 항시 대기

○ 베이비시터사업(부천시니어클럽)

사업명	사업유형	연도	참여인원	사업기간	총투입액(원)	총매출액(원)
베이비시터사업 (까르르잼잼)	시장형	2003	16	2003.1.~2003.12	2,220,000	13,988,000
		2004	23	2004.1.~2005.12	1,372,520	72,185,000
		2005	20	2005.1.~2005.12	2,295,480	83,510,000
		2006	20	2006.1.~ 현재	166,000	29,720,000

성 과	성 공 요 인	활 성 화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장 중심의 사업단 운영 - 고령여성의 역할증대 및 인식개선 - 고령여성 20명의 지속적인 활동과 안정적 소득보장 - 활동의 안전망 구축(베이비시터 및 아이보험 가입) - 까르르잡잡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고령 베이비시터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조사를 통한 철저한 사업 계획 - 베이비시터로서의 자질을 갖춘 어르신 확보 - 고령여성을 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 - 우수 교육 강사진 확보 - 사업단장 중심의 지속적인 홍보 및 활동처 확보 노력 - 시터회원, 부모회원의 철저한 사후관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지원 - 아이보험가입으로 부모회원의 신뢰 -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 활동 회원들의 모범적 사례 통한 입소문 - 부모회원으로부터 요구되는 보수교육 - 회원모임을 통한 활발한 정보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들의 역할부여를 통한 사업단 조직화 - 다양한 홍보전략 수립과 활동처 홍보 - 온라인 홍보를 통한 접근성 확보 - 가격경쟁력 확보

○ 재활용사업(대구남구시니어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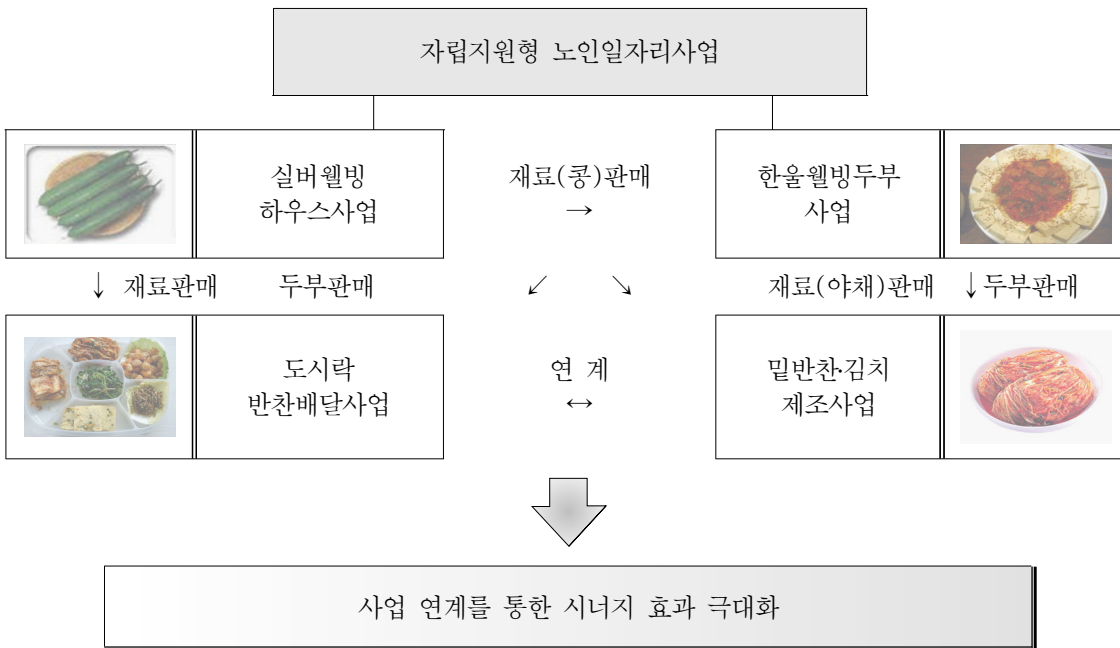
사업명	사업유형	참여인원	사업기간	투입사업비	년간매출액
행복한 나눔가게	시장 참여형	10	2004. 4 ~ 현재(2년)	45,162,233원 -04년 19,036,660원 -05년 26,125,573원	82,325,230원 -04년 45,970,230원 -05년 36,355,000원

현황 및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만에 자체적으로 1매장 확보(2004. 4) - 1여년간의 1매장 운영을 통한 적립금 및 사업개발비지원금 일부 지원을 통한 2매장 (30평) 확보(2006. 3) - 1매장 자립고용 인력 10명 상시참여, 2매장 자립고용 인력 10여명의 고용기대 총 20 여명의 고용창출 효과 - 지역의 외부펀드 확보의 매개체로서의 기능(총 297,007,8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확보 (청장년 노동력 확보 및 사업단 수거 및 전용 운행 차량 확보) - 행복한 나눔가게를 중심으로 한, 연계가능한 노인일자리사업 아이템 개발 및 시니어클럽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구심적의 역할수행 - 지역내 노인일자리 홍보 - 지역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단의 기증품을 지역내 복지기관 및 대상자에게 재환원의 결연나눔행사를 실시함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 지역단체 및 모임 주최의 결연후원행사 실시 및 후원금 확보
성공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기술과 기능 및 강도 높은 노동을 요하지 않으며, 노인의 강점들(절약성과 근면성 등)을 살린점과 투자자본 부담이 적은 사업 아이템이었다는 점 - 사업단 구성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업수행기관의 지속적이고 중점적인 사업으로

	<p>추진 (예산, 인력, 지역행사 개최 방향의 집중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기관이라는 성격을 활용, 재활용품 기증을 유도하여 사업단의 생산품을 용이하게 확보 - 사업단 소재지에 집중 위치된 법인 산하시설의 전폭 지원(기증, 구매 등) - 연령, 계층, 지역성을 포괄하며, 다양한 품목 확보 및 부담없는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대중성화 - 지역장터 및 행사 지속적 참여와 지역언론(TV,신문)에 지속적인 홍보, 방영 - 참여자의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과 일상적인 상담을 통해 사업단 참여자의 조직력 강화 - 청장년층의 중간관리자 배치를 통한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
--	------------------------------------------------------------------------------------------------------------------------------------------------------------------------------------------------------------------------------------------------------------------------------------------------------------------------------------------------------------------------------------------------------------------------------

○ 밀반찬제조사업(광주북구시니어클럽)

사업유형	사업명	참여자수	사업기간	년간투입사업비 (인건비 포함)	년간매출액
자립 지원형	밀반찬제조사업	6명	02. 10. 1~	181,547	174,347
	도시락반찬배달업	25명	03. 4. 1~	120,441	44,457
	한울웰빙두부사업	32명	05. 3. 21~	62,119	8,503
	실버웰빙하우스사업	20명	05. 3. 21~	6,000	2,002
합 계		83명		343,107	229,309



- 자립지원형 사업단과의 연계로 안정적인 판매시스템 구축
- 음식 관련 사업을 통한 매출 안정화
- 향후 음식사업 신규개발·확장 시 기반 조성유리
- 사업단과의 연계를 통한 협동, 나눔, 함께 일하는 공동체 형성

○ 음식제조사업(울산시니어클럽)

사업명	사업유형	참여인원	사업기간(개월)	년간사업비	년간매출액
전통음식 사업단	시장형	5	2005.4~현재(13개월)	44,741,145원	46,774,500원

현황 및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2명 격일제 근무, 배달 상시근무 -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여 수요처 증가 - 통도사 서운암 직판장으로 손쉽게 구입 - 경력자를 위주로 자체적인 운영을 통한 독립 전단계 - 명절(추석, 설)에는 대량주문 가능: 30상 이상 - 1인당 35만원~40만원 활동비 지급
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서비스 실시: 맞춤상, 부분상 - 위생적이고, 깔끔한 포장 -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직접 재료 구입(농수산물) - 이용후기를 통해 개선함 -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

■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 시니어클럽 운영비의 증액(1억5천만원으로는 정원 6명의 인건비지원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운영비, 고유사업비 예산이 부족함)
- 교통수단 (승용 및 화물운송용 트럭)의 협회 차원 지원요함
- 직원보강(시니어 사업의 특성상 예산집행, 사업운영, 제품개발, 홍보, 제품 판매 등의 업무가 타 복지시설의 업무보다 다양하고 복잡함)
- 종사자 처우개선(임금, 근로조건 등 타 복지시설에 비교하여 가장 열악함)

○ 공동작업장(충북 청주시니어클럽)

사업명	사업유형	참여인원	사업기간 (개월)	년간투입사업비	년간매출액
공동작업장	시장참여형	25명	2003.9~현재(2년7개월)	100만원	8천만원

현황 및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 25명 정도 상시 근무 고용창출 및 소득보장 1인 월 15~50만원 - 타 기관 벤처마킹사례로 보급 - 지속적이고 다수 노인의 고용창출이 가능한 시장형 사업 - 참여자들의 지속적 참여(참여자의 2/3 이상이 1년 이상 참여자)
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관리를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업체와의 신뢰관계형성 - 회원조직화를 통한 회원관리 및 사업담당자의 책임있는 운영 -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공동체의식함양, 주체적인 의사결정구조

- 사업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수익성 조사
- 비누제조사업(경남진해시니어클럽)

사업현황 (05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명 : 천연수제비누제조 - 사업유형 : 시장참여형 - 참여인원 : 8명 - 사업기간 : 2004년 10월~ - 연매출액 : ₩30,800,000- - 주거래처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전국 매장 - 비 고 : 06년 노동부사회적일자리 지정(출장목욕사업)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저비용 비누제조법 개발 자체기술력 보유 - 벤치마킹 : 전국 16기관 - 인체환경무해 및 품질보증마크획득 : 한국생활시험연구원 - 전자상거래망 구축 : www.soap114.co.kr - 소득보장 : 1인당 60만원 - 홍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산 mbc 방송국 협찬사 지정(FM채널 98.9 고정) · 진해교차로 파트너쉽 체결 : 월105만원 후원 · EBS 중앙방송 무한도전 천연비누편 방영 (http://www.jhsc.or.kr/down_data/2005_10_08_ebs.wmv) · 2005 경남실버취업박람회 부스참가 외 다수

발전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비누제조 노하우 확보→원가절감→시장경쟁력우수 - 노인에게 적합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手)을 이용 시 품질 우수 →노인의 꼼꼼함 활용 · 큰 힘 필요치 않음→다수노인 참여가능 - 미래지향형→고령친화산업진흥법 대비 ‘실버비누’ 개발 - 사업확장을 위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비누제조,천연비누강사과건,재료채취,출장목욕, 목욕비누제조 외 - 환경친화형→환경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참조 · 조달청 화장품비누 연간 입찰 규모 : 5억원 정도
의견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시장형 사업 전문 컨설팅 업체 의뢰, 평가 후 우수사업 선발 우수사업 집중투자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유:시장형 사업은 자금의 효율적인 집중과 분산이 성공유무에 큰 영향 - 시장형사업은 건실한 한가지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으로 발전 시켜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시에 두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 저하되는 노인특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장형 사업의 특성 때문임 - 시장형 사업은 ‘노인일자리아업’ 이전에 ‘장사’임을 명심 - 시장형 사업은 철저한 준비없이 실적중심에 편중 할 경우 실패요인 - 마케팅교육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마케팅 계획 수립 후 시장 접근 (Product, Place, Price, Promotion을 합리적으로 수립)

나. 지역적 가치와 문화를 창출하는 교육복지형 사업 사례

○ 숲생태해설가사업(한국시니어클럽협회)

기업자본(교보생명)을 유치하여 2002년 3월부터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실시된 숲생태해설가사업은, 현재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니어클럽 전국 공동사업으로 정착되었으며, 고학력 노인들의 적합 직종인 동시에 1.3세대 교류프로그램으로서 참여노인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대단히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 숲생태해설가사업은 2005년 12월 기준, 20개 시니어클럽에서 689여 명의 노인들이 각 지역마다 숲생태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 문화해설사업(경주시니어클럽)

사업명	사업유형	참여 인원	사업기간(개월)	년간사업비	년간매출액(원)
문화유산해설사	교육형	120	2003.10-현재 (31개월)	146,873,000	146,873,000

※ 연간투입액 및 연간매출액은 3년간 지원금액임

현황 및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120명(현재 5기 배출) 문화유산해설사를 배치하고 있는 교육형사업 - 경주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적성을 고려한 사업단 - 문화유적지에 배치하여 경주에 대한 홍보 참여로 사회적인 활동을 지원 - 개인별 능력신장에 의해 교육형에서 일부인원은 시장형 사업단으로 전환진행중임
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주지역은 전국적인 문화재 분포도가 가장 많음 -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성장기부터 문화재를 접하는 기회가 매우 높음 - 시니어클럽의 모법인 (사)신라문화원이 문화유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 - 일자리 사업 참여 후 철저한 교육과 현장실습으로 효율적인 문화재 해설 가능

- 지역적으로 문화재 분포도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음
-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문화재에 의식 존재와 접할 기회가 상시 있음
 - 어르신 대부분이 유아기부터 학창시절까지 문화재를 접해 의식 속에 문화재가 존재함
 - 다수의 문화재가 생활권내인 시내에 분포하여 생활 속에 문화재라는 인식을 가짐
- 모법인의 역량: 지역내 문화단체중 문화재와 문화행사,문화재 활용부문에 가장 경험많음
 - 문화재를 활용한 아이디어 구상과 실현으로 각종 문화행사의 선도적인 역할수행 (전국적인 인지도를 지닌 달빛신라역사기행 11년간 운영)
 -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유산 봉사 및 활용부문 우수단체로정 대통령상 수상(2005. 12월)
- 사업단 참여자로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한 철저한 교육과 현장실무 습득
 - 정형화된 프로그램으로 해설사로서의 기본 자질확립(3개월 144시간, 교수중심 강의)
 - 실무를 위한 문화재현장에서 개인별 연구한 내용 발표 및 해설실습(10회)
- 해설사 자치회 운영 및 연구활동 추진으로 회원 및 기관과 유대감 형성
 - 해설사 자치회 운영으로 회원간 지속적인 관계 형성
 - 월 1회 (타지역 포함)정기답사로 타지역 해설 현장 벤치마킹으로 능력신장 달성
 - 기관과 월 1회 정기간담회를 통한 정보교류 및 애로사항 발굴 해소

- 발전방향(개인별 능력에 따른 참여 사업단의 다양화 추진) : 2006년 현재(12명 시장형)
- 2005년부터 수학여행단 및 가족단위의 소규모 해설 시장형사업으로 전환, 월30만원~80만원 소득
- 2006년부터 시내 초등학생대상 학교방문교육, 디지털 문화재 학교운영(문화재청 후원)

다. 노인적합형 지역특화사업된 공익형 사례 (거리환경개선사업 VIVA6070)

사업명	사업유형	연도	참여인원	사업기간	총투입액(원)	총매출액 (원)
거리환경개선 사업(VIVA6070)	민간수주형 / 공익형	2003	70	2003.05 ~ 11		200,000,000
		2004	110	2004.03 ~ 11		300,000,000
		2005	115	2005.03 ~ 11		300,000,000
		2006	110	2006.03 ~ 11		300,000,000

※ 사업유형은 공공참여형, 시장참여형, 사회참여형, 민간수주형으로 구분하고, 민간수주형은 공공기관이나 외부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사업

성 과	성 공 요 인	활 성 화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확고한 노인일자리 영역 구축 (선호도가 가장 높은 일자리) -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모델 제시 및 전국 보급 - 노인적합형 지역특화사업으로 인식 (지역 주민 대부분 유사사업 인지) - 기존 공공근로형 일자리와 차별화 - 단순한 환경개선 활동 아닌 지역노인 운동차원으로 승화 - 참여노인의 자긍심 및 건강한 어르신상(像) 정립 - 노인일자리 민간위탁방식의 부정적 인식 불식(국내 최초 민간위탁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별 중심의 운영체계 도입 (팀장회의, 팀장연수회 등 리더쉽 강화 프로그램 진행) -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진행 (실무 및 보수교육, 월례회의) - 지자체 및 지역자원과의 유기적인 인적, 물적 협력체계 - 사업수행기관의 헌신적인 노력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 실시 - 방송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전담인력 확보 - 사회적기업 형태의 성장 및 발전 전략 마련 - 사업영역의 특화 - 사업영역의 확대

라. 사업 지속 주요요인

- 사업 전 철저한 시장조사(벤처마킹) 및 수요처 확보
- 성공 가능한 사업 아이템(노인적합직종) 선정
- 순환구조 방식의 연계 사업 추진
- 사업수행기관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업담당자의 마인드

- 지속적인 교육, 회의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전문성 등 재취업능력 확보
- 사업 입지조건 양호
- 시장형 사업의 충분한 예산 지원(외부 관민 자금 포함)
- 참여노인에 의한 주체적 운영 능력배양(의사결정구조, 예산, 홍보, 영업), 자발성
- 사회적 상황(웰빙-국산재료, 손맛 음식사업, IMF-재활용사업)
- 지자체, 기업체, 지역자원의 지원 및 유기적 관계

2. 시니어클럽의 종료사업 사례

사업종류	사업기간	결과	종료요인
짬뽕 사업	8개월	자체 종료	- 비메뉴얼화로 음식 맛 변동, 매출하락 - 지자체, 가건축물 폐쇄 명령에 의한 사업종료 - 지자체와의 관계(불응 보조금 미지급사태 발생)
은빛마을	10개월	판매부진 종료	- 상품의 특성화 부족, 관리부족, 비싼 가게세 - 판매실적 저조
공부방	11개월	사업중복, 자체 종료	-지역복지관 등 유사 기관사업과 중복
인력파견사업	18개월	사업전환 종료	- 경기불황으로 사업단 전환 - 업무 중복으로 인한 관리소홀
택배사업	9개월	자체종료	- 전담인력부족으로 사업매진 역부족
제빵제과사업	15개월	판매 부진 종료	- 자격증 취득실패 - 배달인력확보 어려움 - 근로능력 저하 로 생산성 저하 (전담인력문제)
정과사업	3개월	업종잘못 선정, 종료	- 고가의 재료구입 - 명절 등 한정 시기 용품(사업품목 잘못 선정)
유기농농장사업	12개월	기술부족 종료	- 농장 접근성 부족 - 투입 대비 수확량 미흡(농업기술 부족)
스팀세차사업	5개월	업종 잘못 선정, 종료	- 기계운반의 어려움 - 세차사업에 대한 전문성결여(교육부족) - 스팀세차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부족

✓ 실패 주요요인

- 사업 아이템 잘못 선정(노인비적합직종)
- 시장조사 미흡
- 기술력 부족
- 경영관리능력 부족
- 입지 조건 불리
- 노인인력의 비효율성
- 참여 노인에 대한 교육 부족
- 지자체와의 불편한 관계
- 시장형 사업에 대한 투자 예산부족

4. 지속 가능한 한국형노인일자리사업 개발을 위한 시니어클럽 활성화 방안

- 일관성 있는 일자리정책으로 생산적인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시급
- 노인일자리전문창출기관인 시니어클럽사업 전국 사·도 확산
- 고령자사회적기업 육성위한 지원으로 집중적 모델 개발
- 우수사업·전략사업 발굴, 중점 사업비 지원으로 '노인적합형 사회적 기업' 조성
- 사회적일자리 발굴 및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지속적 민간위탁으로 보호된 시장 확보
- 고령자 중심의 재취업교육, 보수교육을 통한 생존능력배양 (고령자재취업교육지원기관)
- 사업수행기관 사업담당실무자 경영관리능력 배양 교육비 투자

나오며 :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꿈꾸며

사례 맺음을 하면서 먼저 자료정리에 시간이 부족하여 전국 시니어클럽사업을 소개하지도 못했고, 또한 사례 선별에 있어서도 신중치 못하였음에 시니어클럽 기관장 및 실무자 여러분들께 깊은 양해를 구한다.

이상으로 시장형 중심의 시니어클럽의 사업 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로 제시된 하나하나의 사업, 또한 제시되지 않았지만 전국 시니어클럽 35개소에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들은 고령인력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시니어 클럽사업에 대한 지원부족, 시장형사업의 어려움 등 열악한 사업추진 환경 가운데 만들어지는 땀어린 과정의 결과물이다. 생산적 결과를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시니어클럽의 사업을 일시적이고 나눠주기식의 임시방편형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제시된 단순한 수치적 결과를 가지고 이해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본다.

저출산고령화로 물구나무서기를 시작한 대한민국은 경제 및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를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노인인력을 활용한 건강한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은 중장기 계획하에서 추진되어야 만이 건강한 국가와 지역사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노인노동력활용과 일자리창출의 핵심은 소규모 지역(동네)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중심사업이 되어야하고, 지역주민의 신뢰를 통해 노인층 경제활동의 연속성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짐을 결론으로 맺으며 그동안 대구남구시니어클럽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점을 부족하나마 제시하고자 한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꿈꾸며

『사람들은 자기의 부모만을 부모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들은 편안히 여생을 보낼 곳이 있으며, 장성한 사람들에게겐 일자리가 있고, 어린이에게엔 모두 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할아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부모, 폐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보호와 양육을 받는다..... 재화가 땅에 버려지는 것은 싫어하지만 반드시 자기만 사사로이 독점하려 하지 않으며, 힘이 자기로부터 나오지 않음을 부끄럽게 여기지만 자기만을 위해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이러한 사회를 대동(大同)이라고 한다. — <예기(禮記)> 「예운(禮運)」』

지역복지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이러한 대동사회를 내가 꿈꾸는 것이 한갓 이상일까라는 한계적 생각도 해보지만 ‘만남’의 대동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욕심을 내어 본다. 내가 이러한 욕심을 감히 내어보는 것은 대구남구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한 나눔가게」 문을 열고 그 미래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다.

알콩달콩 사람사는 동네에 선순환 구조가 행복한나눔가게는 2004년 10월부터 지역의 노인들이 운영하고 지역주민들이 지원하는 재활용품 가게로서 웨딩샷을 보수하여 만들어져 참으로 우아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한번 들 와 보십시오). 이 가게의 역할은 지역주민들이 기증한 재활용품들을 수거하여 노인들의 축적된 생애경험과 꼼꼼한 손질로 세탁, 수선, 수리 등을 통해 새 생명을 불어넣어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저렴한 가격으로 되돌려지는 되살림의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게는 순환과 나눔의 환경적 의미를 넘어 고령화사회 지역노인들에게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지역만들기라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곳은 늘상 동네 주민들이 찾아와 알콩달콩 사람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동네주민들이 안쓰는 물건을 가져와 기증하고 필요한 물건은 사가고, 그 수익금은 지역노인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수익금은 다시 지역에 쓰여 지고 있다.

다시 생각해도 무모한 도전, 아픈 기억과 설레임

지금은 이처럼 10분의 지역노인들이 일하고 계시지만 이 가게가 있기까지는 생각해보면 가슴 벅차고 눈물이 맺힌다. 행복한나눔가게가 2004년 10월에 오픈을 하기까지는 2년여 세월의 준비기간이 있었다. 먼저 국내의 자료 검색을 통해 재활용사업을 조사하고, 동네 아파트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터사람들을 졸졸 따라다니기도 하고, 자치단체알뜰장터, 홍대앞캐비시장, 아름다운가게 등을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 와서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데 1년의 세월을 보냈고, 2004년에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 5명이 겁도없이 아름다운가게 특선행사를 벤치마킹하여 5월에 대구교육대학 대운동장에서 대구지역 최초로 웬만한 시골장터 뺀치는 텐트 60동의 ‘행복한 나눔장터’를 벌렸다. 오! 매표사 행사당일 비는 왔지만 3,0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왔다가 그나마 위안이 되었고 장터는 성황리에 끝났다. 그러나 고정된 가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진 예산은 태부족, 여기서 말수는 없는 일, 우리는 무리하게 또다시 두 번째 행복한나눔장터인 ‘한여름 밤의 꿈’이라는 후원행사를 이 또한 5명이서 일을 벌렸다. 두서없는 행사에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미안도 했지만 1,000여 만원의 순수이익금을 남겼고, 아름다운가게와 MBC가 개최한 나눔장터, 행복한나눔장터가 태동이 된 ‘남구청알뜰장터’등을 참가하면서 자본금을 만들고 경험을 축적하여 드디어 2004년 10월에 행복한 나눔가게가 문을 열게 되었고, 현재까지 지역 내에서 행복한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2006년 5월25일 2호점을 오픈한다. 이 모든 과정을 남구시니어클럽 직원들과 현재 나눔가게에 참여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냈다. 글로써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지금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온다. 무엇인가 하나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결정체는 꿈꾸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분명한 실체인 것이다.

우리는 그림을 그린다. 지역 속에 살아 숨쉬는 ‘고령자 사회적 기업’을 「행복한나눔가게」는 작지만 기업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다. 일반 재활용품뿐만 아니라 떡, 한지수공예용품, 무공해농산물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전자전기제품수리가게인 행복한 전파상도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행복한나눔가게의 미래를 본다. 고령사회! 대구지역의 마을단위마다 수십개의 행복한 나눔가게가 들어서고, 행복한나눔가게의 물류창고에서는 백 여 명의 노인들이 분류 - 수선 - 수리 - 검수 - 유통의 과정마다 제각기의 밝은 모습을 하면서 분주하게 일하다 가까운 집으로 돌아가는 지역 내 「고령자사회적기업」의 모습을 본다.

또한 옆집에서는 노인들이 손 떡을 만들고, 옆집에서는 노인들이 한지 공예품을 만들고, 옆집에서는 노인들이 장류를 만들고, 옆집에서는 음식을 만들어 팔고, 길거리에는 노인들이 이들 상품들을 차나 자전거에 싣고 휘파람불어 달리는 활동적 고령화(Active Aging)가 일어나고 있는 마을을 그려본다. ‘행복한나눔가게’가 확산되고 그 정신이 마을을 움직이는 기운으로 만들어져 더불어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것이다.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이 지역사회가 고령사회를 맞는 대안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꿈꾸는 '만큼'의 대동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고령사회 지속가능한 한국형 노인일자리가 만들어 지지 않을까? 이러한 노인중심의 가게와 사업단이 여러분들의 동네마다에 살아숨쉴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지원을 간곡히 바랍니다.

2006년 노인일자리사업 세미나

2006년 5월 8일 인쇄
2005년 5월 8일 발행

발행인 최 성 재
편집인 변 재 관
발행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
양재환승주차장B/D 505호
TEL. 6203-6906 FAX. 6203-6909
